



일본 교육정책 비교 시찰 관련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의 장

2024년 5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I 공무국외활동 추진 개요

1 공무국외활동 개요

방문국 : 일본(도쿄, 오사카)

연수목적

○ 선진 교육제도 탐방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적용

-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학교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변화 필요, 일본의 폐교 활용 사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 사례 등을 검토하여 미래 교육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 모색
- 유보통합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 본격 시행이 예고되어 있기에 기 시행중인 일본의 사례 벤치마킹
- 일본의 특수교육 지원 현황 및 정책 방안 검토, 중증 장애학생들의 의료 지원 사례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새로운 발전 방안 모색

연수기간 : 2024. 5. 13.(월) ~ 5. 18.(토) [5박 6일]

방문단 구성 : 교육위원장 등 총 15명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11명, 전문위원실 직원 4명

- 단 장 (1): 이승미 교육위원장
- 단 원(10): 고광민,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위원
- 전문위원실 공무원(4): 심혁보 수석전문위원, 정진국 의안심사지원팀장, 이가영 입법조사관, 노이안 주무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11명

연번	의원명	직위	주요 업무사항	비고
1	이 승 미	위원장	공무국외활동 총괄	단장
2	고 광 민	부위원장	도쿄도 교육위원회 기능 연구	

연번	의원명	직위	주요 업무사항	비고
3	김혜영	위원	도쿄도의회 상임위원회 기능 연구	
4	심미경	위원	일본 특수교육 지원 현황 연구	
5	이새날	위원	일본 유보통합 운영 현황 및 인정어린이집 운영 연구	
6	이종태	위원	일본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현황 연구	
7	최유희	위원	일본 유보통합 형태 및 인정어린이집 유형 연구	
8	이희원	위원	일본 폐교 현황 및 활용 방안 연구	
9	전병주	위원	일본 학교복합시설 운영 현황 연구	
10	채수지	위원	일본 특별지원학교 운영 현황 연구	
11	우형찬	위원	일본 폐교 활용 정책 연구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4명

연번	성명	직위	주요 업무사항	비고
1	심혁보	교육수석전문위원	단장 보좌, 시찰단 수행 총괄	
2	정진국	의안심사지원팀장	의전행사 지원 및 의원 보좌	
3	이가영	입법조사관	방문기관 및 시찰기관 자료 수집 등	
4	노이안	주무관	현지 일정 관리 및 방문 기관 담당자 접촉 등	

방문 기관

도시	방문기관	주요 방문목적
도쿄	도쿄도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수도인 도쿄도의회(문교위원회)를 방문하여 상임위원회 운영 및 교육위원회 제도 비교·분석 - 도쿄와 서울이 겪고 있는 유사한 교육 문

도 시	방 문 기 관	주요 방문목적
		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 논의 및 개선 방안 도출
	고도모노모리 인정어린이집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보통합이 추진될 예정, 우리나라보다 먼저 유보통합을 추진한 일본의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 등을 도출, 정책 시행시 반영
	국제어린이도서관	- 도쿄의 대표적인 어린이도서관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 - 서울에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새로운 모델 제시
	후나바시 나츠미 특별지원학교	- 일본 및 지바현의 특수교육 지원 현황 및 중증 장애 학생을 위한 의료지원 현황 등 검토 - 우리나라 특수교육 지원 방향에 시사점 제공
오사카	모리구치시립 사츠키학원	- 일본 학교의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 및 지역 주민들의 학교 참여 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서울시 학교복합화시설 운영 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초·중 통합학교인 의무교육학교의 장·단점 분석
	교토국제만화박물관	- 일본의 폐교 정책 방향 및 폐교 활용 시설 관리 및 운영 시스템 검토 - 우리나라 폐교 활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오사카 통학로 시찰	- 오사카 통학로 안전 대책안 및 관리 시스템 분석 - 우리나라 통학로 안전 방안 및 대책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2

공무국외활동 추진 경위

□ 방문국가 및 기관 선정 사전논의

○ 공무국외활동 관련 간담회 개최(1차)

- 일시 : '23. 11. 2.(목) 09:30
- 장소 : 교육위원회 간담회장
- 참석 : 총 25명(교육위원회 위원 13명, 전문위원실 직원 12명)
- 내용 : 연구주제 및 방문국가 선정 논의 등

○ 공무국외활동 관련 간담회 개최(2차)

- 일시 : '23. 12. 18.(월) 14:00
- 참석 : 총 20명(교육위원회 위원 13명, 전문위원실 직원 7명)
- 내용 : 방문국가 재선정 논의 및 국외 출장에 따른 여비 안내 등

○ 공무국외활동 관련 위원장단 간담회 개최(3차)

- 일시 : '24. 1. 17.(수)
- 장소 : 교육위원회 간담회장
- 참석 : 총 15명(교육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2명, 교육위원 7명, 직원 5명)
- 내용 : 방문기관에 대한 주요 질의사항 논의, 세부일정 점검, 여비 안내 등

○ 공무국외활동 관련 위원장단 간담회 개최(4차)

- 일시 : '24. 2. 26.(월)
- 장소 : 교육위원회 간담회장
- 참석 : 총 13명(교육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2명, 교육위원 5명, 직원 5명)
- 내용 : 일본 방문 도시 및 도시별 주요 견학기관 및 시찰지역 설명 등

□ 교육 정책 연구주제 선정 관련 주요 논의

○ 서울시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 토론회

- 일시 : '23. 9. 2.(토)
- 장소 : 백범김구기념관
- 참석자: 시민 103명(숙의토론)
 - 세부의제1) 서울학교 합리적 재배치 필요성
 - 세부의제2) 서울학교 합리적 재배치 대상학교 선정기준
 - 세부의제3) 서울학교 합리적 재배치 대상학교 선정 의견수렴 방안
- 참석자 주요 발언 내용
 - 합리적 재배치 유형(통합운영학교 등)
 - 재배치 대상학교 선정기준(재배치 방안, 통학거리 등)
 - 재배치 의사결정(최종 의사결정 주체 등)
 - 현재 운영중인 소규모 학교의 운영 성과, 교육효과 등
 - 재배치후 폐교 학교 활용방안
- 기 타
 - 분교화와 복합화의 차이 등
 - 대상학교 지정 후 학생지원방안
 - 교사수 감소시 행정업무 과중 대비책
 - 정부의 노력 등

○ 정부 유보통합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일 시 : '24. 4. 16.(화)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
- 주 제 : '유보통합 대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
 - 정부 유보통합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예상되는 보육 현장의 문제점 및 대응 방안
 - 유보통합과 연계하여 서울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3 연 수 일 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주요일정	비고
5/13(월) (1일차)	인 천	항공	10:10	인천 국제공항	이동
	일 본 (동경)	전용 차량	오후	◦ 기관방문 : 도쿄도의회 방문	도쿄 1박
5/14(화) (2일차)	일 본 (동경)	전용 차량	오전	◦ 기관방문 : 후나바시 나쓰미 특별지원학교 방문 (특별지원학교 방문)	도쿄 1박
			오후	◦ 현장시찰 : 국립국회 국제 어린이도서관	
5/15(수) (3일차)	일 본 (동경)	전용 차량	오전	◦ 기관방문 : 고도모노모리 인정어린이집 방문 (유보통합 사례 시설 방문)	오사카 1박
	일 본 (오사카)	신칸센	오후	◦ 오사카 이동 : 동경역 ⇒ 신오사카역	
5/16(목) (4일차)	일 본 (오사카)	전용 차량	오전 오후	◦ 기관방문 : 모리구치시립 사츠키 학원 방문 (학교복합화시설 방문)	오사카 1박
5/17(금) (5일차)	일 본 (오사카)	전용 차량	오전	◦ 기관방문 : 교토국제만화박물관 (폐교 활용 시설 방문)	오사카 1박
			오후	◦ 현장시찰 : 오사카 통학로 시찰	
5/18(토) (6일차)	일 본 (오사카)	항공	12:35 14:25	간사이 국제공항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이동

Ⅱ 방문 기관별 주요 정보 및 활동 사항

1 도쿄도의회

기관명	도쿄도의회(東京都議会)	
방문일시	2024. 5. 13.(월)	
장소	도쿄도의회 문교위원회 회의실	
참석자	후지이 아키라 위원장 등 12명 문교위원회 위원	

방문 활동 순서

- 주요 참석자 소개
- 후지이 아키라 위원장 및 이승미 위원장 인사말
- 도쿄도의회 문교위원회 구성 및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한 설명
- 질의응답
- 기념품 전달 및 사진 촬영

기관 소개

- 연혁
 - 도쿄도의회는 1943년 도쿄부와 도쿄시가 합병되어 도쿄도가 생기면서 같은 해에 설립되었고, 현재와 같은 지방공공단체의 입법기관이 된 것은 일본 헌법을 바탕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1947년부터임.
 - 그 당시 도쿄도의회는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추진하기 위해 각종 제도(위원회 설치, 의안제출권 및 사무에 대한 조사권 등의 부여)가 정비되었고, 이후에도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의회제도가 정비되었음.

○ 도쿄도의회 상임위원회

- 현재 도쿄도의회에는 9개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도쿄도의회
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 보지 않음), 문교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 생활문화스포츠국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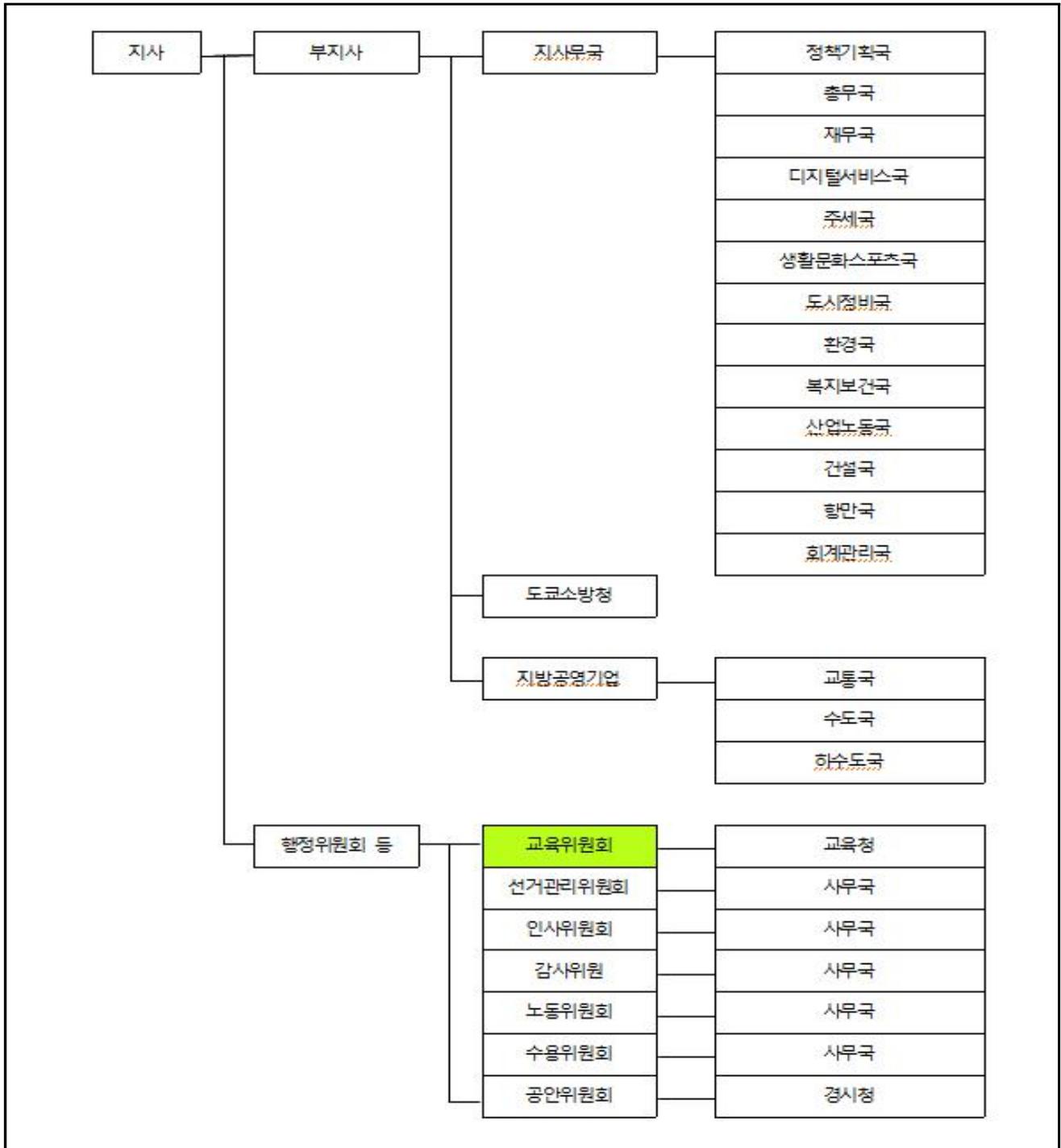
[표-1] 도쿄도의회 상임위원회 현황

위원회 명칭	소관
총무위원회	정책기획국, 아동정책연락실, 창업·국제금융도시전략실, 총무국, 디지털서비스국, 인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재정위원회	수용위원회, 재무국, 주요 세무국, 회계 관리국
문교위원회	교육위원회, 생활문화스포츠국
도시정비위원회	도시정비국, 주택정책본부
후생위원회	보건의료부, 복지부
경제 및 항만위원회	노동위원회, 중앙도매시장, 항만청, 산업노동국
환경,건설위원회	환경학과, 건설학과
공영기업위원회	교통부, 상수도부, 하수도과
경찰,소방위원회	공안위원회(경시청), 도쿄소방청

○ 일본의 교육위원회 제도

- 일본은 지역의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광역도시의 경우 도도부
현의 교육위원회임.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교육청에 해당하는 것은 교
육위원회 안에 교육장이 관장하는 사무국임.
- 이와 같이 일본의 교육위원회는 지자체 행정기관(도쿄도)으로부터 독
립된 행정위원회 중 하나로 합의제 기관이며, 교육위원회 안에 집행
기관인 사무국(교육청)을 두고 있는 형태임.

[그림-1] 도쿄도 교육위원회 형태



□ 주요 설명 내용 (설명자: 후지이 아키라 문교위원회 위원장)

○ 일본 지방의회 구성 및 운영

- 일본 헌법에서는 지방공공단체에 의사기관으로서 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본 지방자치법에서 지방공공단체 의회의 의원 등은 직접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음.
-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공공단체 의회의 위원회와 관련하여 조례로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중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방공공단체 사무에 관한 조사, 의안 및 청원 등의 심사 등을 시행하도록 함.
- 도쿄도의회는 연 4회(2월, 6월, 9월, 12월)에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회기 기간은 약 30일임. 필요에 따라 임시회가 개최되기도 함.

○ 도쿄도 의회의 권한

- 도쿄도의회는 도쿄도 지방공공단체의 의결기관으로 조례의 제정 및 폐지에 대한 의결권, 예산 결정권 등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지사가 임명하는 주요 인사(부지사, 교육위원회 위원 등) 등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도쿄도의회는 서류 및 계산서의 검열, 집행기관으로부터의 보고 등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관리 및 출납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검사 권한이 있고,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거나 외부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감사 청구권이 있음.
- 특히 일본 지방의회에는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규정되어 일명 '100조 조사권'이라고 불리는 권한이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나,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며 시행된 사례는 드물.

○ 도쿄도의 특징

-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광역 지방공공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현)’ 과 기초 지방자치체인 ‘시정촌(時町村)’의 이중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다만 도쿄도는 다른 도도부현과 같이 광역 지방공공단체이지만 ‘특별구’라고 하는 23개 특별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하고 있음.
- 특별구는 도에만 설치된 지방공공단체의 하나로, ‘시’와 유한 기능을 가진 특별지방공공단체를 의미함.
- 도쿄도에는 총 42개 선거구가 있으며 23개 특별구 이 외 19개(다마지역 등) 지역에 선거구가 있음.

○ 도쿄도 교육재정

- 도쿄도 교육위원회 관할 교육 예산은 8,764억엔(2022년 기준)으로 도쿄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총액 7조 8,009억 엔의 11.2%를 차지하고 있음.

○ 도쿄도 교육비전 및 주요 교육 정책

- 도쿄도의 교육비전은 정보화, 국제화 등으로 급속하게 변화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학생을 육성하는 것임. 이를 위해 1) 모든 학생들의 ‘지(知), 덕(德), 체(體)’를 균형있게 육성하고, 2)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협력하여 학생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활동 실행, “교육의 첨단기술 이용 및 활용 촉진 사업”, “학력 향상을 위한 조사 시행”, “초등학교 영어 교육에 관한 지도 체계 정비”, “스쿨 카운슬러 배치”, “학교의 식생활 교육 추진”, “고등학교와 대학교 연계 추진”,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 교육활동을 위한 총괄 코디네이터 배치” 등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표-2] 도쿄도 교육비전(제4차) 체계

목표	기본 방침
학생의 '지, 덕, 체'를 육성하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공헌하는 힘을 배양한다	1. 모든 학생에게 확실한 학력을 육성하는 교육
	2.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
	3. 글로벌하게 활약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4. 꿈과 뜻을 가지고 가능성에 도전하고자 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
	5. 풍요로운 마음을 함양하고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교육
	6. 건강한 몸을 기르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힘을 육성하는 교육
	7. 올림픽·패럴림픽의 정신을 배우고 함양하는 교육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서로 연계·협력하여 학생을 육성한다	8. 학생의 다양한 요구와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도립 고등학교 개혁"
	9. 앞으로의 교육을 담당할 우수한 교원의 육성
	10. 교원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근무방식의 개혁"
	11. 질 높은 교육을 지탱하는 환경의 정비
	12. 가정,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협동하는 교육 활동

○ 도쿄도의회 문교위원회의 주요 추진 교육 정책

- 일본은 2021년 IMD¹⁾에서 발표하는 '세계 디지털 경쟁력 조사'에서 부분별 하위를 기록한 후, 교육에서의 디지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문부과학성은 '학교교육 정보화 추진 법률'에 근거해 1) ICT를 활용한 학생의 자질과 능력 육성, 2) 교사의 ICT활용 지도력 향상과 인재 확보, 3) ICT를 활용하기 위한 환경 정비, 4) ICT 추진체제의 정비와 교무 개선이라는 큰 방향을 세우고 있음.
- 이에 도쿄도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도쿄도 학교 등의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임.

1) 스위스에 있는 국제경영개발 대학원으로, 국가별 경쟁력 평가 등을 조사하는 기관임.

□ 질의응답 주요 내용

질 문	주요 답변 내용
<p>한국에서도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임. 일본은 어떤 상황 인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코로나 이후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에 늦은감이 있어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임. • 도쿄도의회는 고등학교만 담당하고 있고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사업에 따라 학생들이 디지털 문제집 등을 활용하여 학습이력을 축적하는 등 교사들이 학생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필요한 상황에 신속하게 지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음. • 그러나 일본에서도 디지털 기기 활용의 증가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음.
<p>일본은 자연재해가 많은 편인데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련된 정책은 있는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재난 대비를 위한 소책자 제작, 학생 및 교사 연수 실시 등 재난 대피를 위한 관리자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유치원부터 중등학교까지 매주 1회 재난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정신교육은 없는 상황임. • 이는 도쿄도의 경우에는 지난 30년간 자연재해가 없었던 것도 이유인 것으로 생각됨.
<p>일본의 유보통합 상황은 어떠한가요? 시행 이후 문제점은 무엇이며 의회에서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 유보통합 담당 상임위원회는 문교위가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실질적인 업무는 구에서 담당하고 있음. • 일본의 유보통합의 경우 현재 완전한 통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까지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유보통합의 한 형태로 인정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유보통합의 일체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p>도쿄도의 주요 교육목표를 살펴보았을 때 올림픽 정신을 배우고 함양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학교체육과 지역사회 체육 교육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진행해 왔음. 특히 2012년 국가 차원에서 ‘스포츠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학교 체육교육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음.

질 문	주요 답변 내용
<p>는 교육이 포함되는 등 체육교육이 활성화되었다는 생각이 듭. 도쿄도의 체육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일본은 방과후 동아리 활동인 ‘부가츠’라는 학교 체육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 중·고교의 운동부 활동과도 연계가 되고 있음. 부가츠는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일본의 중·고등학생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공식적인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하다 보니 교원들이 부가츠 지도를 맡고 있고 이로 인한 교원들의 업무 과중이 문제가 되고 있긴 함.
<p>도쿄도 두 가지 교육비전 중 하나가 가정,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협동하는 교육활동이 포함된 점이 인상적임. 이러한 교육목표를 설정하게 된 배경 및 계기는 무엇인가요? 특히 지역연계 교육과정을 위해 “총괄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것 같은데 이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에서는 학교교육과 지역·사회교육 간의 연계, 협력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음.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학교와 가정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흐름은 1980년대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의 필요성은 더 강조된 것으로 보임. • 특히, 2000년대 들어서 학교 경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중심에 둔 커뮤니티스쿨(학교운영협의회)제도가 생기면서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문화가 더욱 활성화된 것임. • 그리고 이후 학교는 지역 활동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면서 학교 교육과정에 지역 주민 및 전문가들이 교육활동을 위한 유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총괄코디네이터는 이러한 학교-지역 간 교육 활동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기관 방문에 따른 시사점

- 이번 방문은 한국이 최근 32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 및 책임성이 강화되는 변화의 시기에 도쿄도 의회에 운영 및 구성, 집행기관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서 양 국가의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한국은 현재 교육위원회가 의회의 상임위원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교육청은 해당 지역 지자체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반면, 일본은 교육위원회가 지자체 행정기관의 독립된 행정위원회인 합의제 기관이며 교육청은 이러한 교육위원회 내 사무국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그리고 이러한 교육위원회의 업무를 심의하는 의회 상임위원회가 문교위원회로 구성됨.
- 이와 같이 양 국가의 교육 관련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및 교육위원회 구성 및 역할을 살펴보고, 일본 의회의 문교위원회 및 도쿄도의 교육위원회 시스템 및 역할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고찰할 수 있었음.
-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양 국가의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면서 학교 교육 환경에서도 디지털 기기 도입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은 공감대를 이룸.
-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와 논의가 더 필요하는 입장에 다수의 의원이 공감함.
- 또한 도쿄도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지역·사회와 학교 교육과의 연계 교육활동은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소멸, 학교 통폐합등을 겪은 일본이 학교와 지역 모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에 지역·사회와 학교 교육 연계 활동은 금번 연수 기간에 방문하는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방문 사진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



기관 프레젠테이션



질의응답(1)



질의응답(2)



기념품 전달



단체 기념 촬영

2

후나바시 나츠미 특별지원학교

기관명	후나바시 나츠미 특별지원학교 (船橋夏見特別支援学校)	
방문일시	2024. 5. 14.(화)	
장소	후나바시 나츠미 특별지원학교 교실	
참석자	- 지바현 교육위원회 특별지원 교육과 시오타 실장 - 후나바시 나츠미 특별지원학 교 이무타 교장 - 후나바시 나츠미 특별지원학 교 나카야마 교감	

방문 활동 순서

- 주요 참석자 소개
- 후나바시 나츠미 특별지원학교 이무타 교장 및 이승미 위원장 인사말
- 지바현 특별교육 정책 현황 및 후나바시 나츠미 특별지원학교 교육과정 등 설명
- 질의응답
- 주요 시설 탐방
- 기념품 전달 및 사진 촬영

기관 소개

- 연혁
 - 동 기관은 1977년 설립된 지바현립 후나바시 양호학교가 2007년 「지바 현립 후나바시 특별지원학교」로 개명되고, 이후 2015년에

본교에서 중학교·고등학교를 분리하여 「지바 현립 후나바시 나즈미 특별지원학교」가 분교로 설립된 것임. 후나바시 나즈미 특별지원학교는 특수학생 중에서도 ‘신체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특별지원교육²⁾을 하는 학교임. 도쿄도 동쪽에 위치한 지바현 후나바시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학부 23개 학급, 고등부 25개 학급으로 이루어짐.

○ 교육비전

- 후나바시 나즈미 특별지원학교는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하여 자질과 능력을 조화롭게 육성”한다는 학교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① 학습의 연속성을 중시하는 교육 커리큘럼 추진, ②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③ 지역의 교육력을 살린 학습 추진, ④ 교직원의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을 학교 교육의 중점 목표로 삼고 있음.

□ 주요 설명 내용 (설명자: 지바현 교육위원회 시오타 실장)

○ 지바현 특별지원학교 학생 현황

- 현재 지바현에는 특별지원학교가 46개교이며 재학중인 학생 수는 총 7,101명임. 1998년에 3,618명이었던 장애 학생들이 현재 7,101명까지 증가하였음.
- 이는 의료 발달에 따라 장애 학생들의 생존률이 높아지고, 장애학생에 대한 적용기준을 완화하면서 대상학생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일본은 일반학급에서 장애 학생들과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해마다 특별지원학교 및 특별지원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 이는 실제 통합교육 과정에서 장애 학생들이 오히려 퇴행 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이 오히려 특수학교를 선

2) 장애아가 자립하고 사회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각 아동의 교육적 요구를 이해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하며 생활과 학습의 어려움을 개선하거나 극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임.

택하게 되고, 특히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진학 지도에 대해서도 일반 학교 보다 특수학교의 전문성이 높아지면서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특수학교의 사회적 기대가 높아진 것이 주요원인으로 보임. 실제 지바현 특수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개별 교육이 가능하며 미래 직업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장애학생 의료지원³⁾에 관한 제도 정비 과정

-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장애 학생들에 대한 의료적 지원 체계가 마련된 것은 2004년이었으나 처음 문제 제기가 된 것은 1995년이었으며 당시 첫 시범 학교로 운영된 것이 동 기관임.
- 1995년 장애 학생들의 의료 지원을 처음 제안한 것은 교사들이었음. 그래서 처음 5년간은 교사들이 직접 의료 지원을 하게 되었고, 이후 간호사들을 배치하면서 2004년부터는 교육청에서 간호사를 관리, 파견하는 것으로 제도화되었음.
- 시범 운영 초기에는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로 인한 학교측의 반대,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 등으로 인한 갈등 발생이 있었으나 관계 기관 및 구성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며, 결국 2004년도에 전국적으로 제도화되어 국가 차원의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이 제작됨.
- 이와 같이 일본은 초기에 시범 학교 운영을 통해 장애 학생 의료 지원 대상 학교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제도를 구축해 왔고, 이로 인해 현재 지바현에는 특수학교 30개, 고등학교 1개교에서 의료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2022년에는 「의료적 케어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학생들에게 평생 의료지원이 가능한 센터 등이 구축되기도 하였음.

3)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의료케어 지도, 조연 하에서 간호사와 교원이 연계 협동하여 실시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의미함.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보는 것.

○ 후나바시 나츠미 특수학교 현황

- 중학생 54명 고등학생 48명으로 중·고등학교만 있으며 이들 중 15명이 학교 내에서 의료 지원을 받고 있음. 교직원은 130명(관리: 교장, 교감, 교사, 보건교사, 행정직원 이외에 간호사, 간병인, 요리사, 학교급식보조원, 기술자, 학교 지원 직원 등)으로 학생수 대비 교직원 수가 상당히 많은 편임.
- 의료 지원을 하는 직원은 보건교사 2명, 간호사 4명(순회), 의료실시 교사 14명으로 구성되며, 진료 확인 등은 교원 전체가 하고 있고, 의료 코디네이터가 2명 배치되어 있음.

○ 특별지원학교의 교육과정

- “자립활동”은 일본의 특별지원교육의 독자적인 교육과정으로 개별 학생의 자립을 목표로 장애에 기초한 다양한 어려움을 주체적으로 개선,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및 습관을 기르고, 이것에 의해 심신의 조화적 발달의 기초를 기르는 학습임.
- “자립활동의”의 내용은 1.건강유지 2. 심리적 안정 3. 인간관계 형성 4. 환경의 파악 5. 신체의 움직임 6. 커뮤니케이션으로 의료지원은 이 중 건강유지 교육과정에 해당하고 볼 수 있음.
- 심리적 안정, 인간관계 형성, 신체적 움직임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사, 간호사가 서로 연계되어 수업을 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주요한 과제임(자립활동과 의료지원의 연계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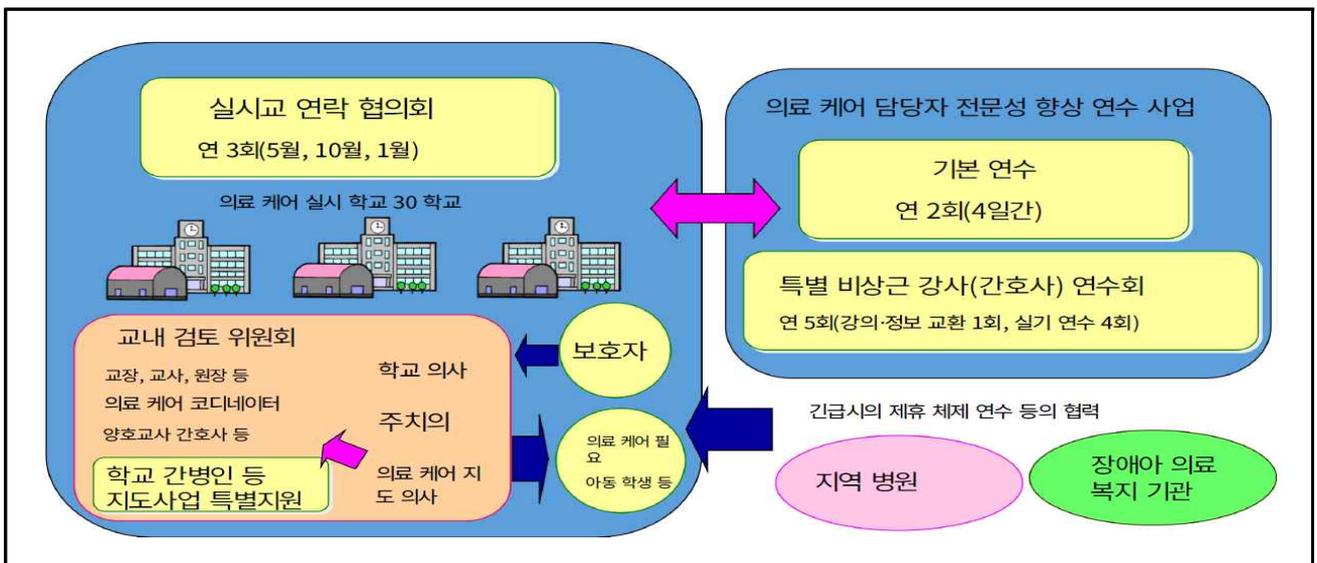
○ 의료지원 체계 및 목적

- 의료지원은 지바현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음. 현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의료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인데 의료지원관 관련된 관계자들(병원장, 학교장, 교사, 간호사 등)이 모여 1년에 3번 정도 운

영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임.

- 반면 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은 교사, 간호사 등 실제 의료 지원에 대한 연수에 관한 회의를 시행하는 것임.
- 의료지원의 목적은 학생의 1)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 2) 학교생활의 충실 3) 미래를 향한 자립 4) 기본적인 건강 상태 유지하는 것으로 “교육으로서의 의료 관리”가 궁극적인 목적임.

[그림-2] 지바현 장애학생 의료지원 체계



□ 질의응답 주요 내용

질 문	주요 답변 내용
<p>학교에서 장애학생들에게 의료지원을 할 경우, 사고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바현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지바현 학교에서의 의료지원은 간호사와 교사가 협동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의료 지원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 책임이 학교측에 있다고 밝혀질 경우에도 교사 또는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학교,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되어 있음. •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현 단위의 협의체에서 결정하고 있음.
<p>장애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도 있음. 특수학교에서의 교육과 비교하여 어떤 교육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도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이 함께 교육하는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일반학교에서 교육받는 것이 힘든 장애학생들이 있는 것이 현실임. •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반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소외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바현에서는 중도중복 장애학생들의 경우 학생들 개별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특수학교에서의 교육을 더 선호하는 상황임. • 특히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 일반학교 보다 특수학교에서의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음.
<p>학교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장애학생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의 의료지원은 치료의 개념이 아닌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함. •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위해 식사해야 하는 등 모든 교육활동에서 의료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를 치료의 관점이 아니라 장애학생들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특수교육과정의 일환인 자립활동에서 건강유지 관련 교육과정을 의료 치료 지원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음.

질 문	주요 답변 내용
<p>학교에서 의료 지원을 할 경우 간호사 인건비 등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바현 인구가 630만명 정도이며 이 중에서 학교에서 의료 지원을 받아야 하는 학생은 총 250여명 정도 되는 상황임. • 이는 실제로 장애학생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에서의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임. • 서울 전체 인구를 고려했을때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서울의 경우 약 250명~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 • 따라서 서울도 이 정도 규모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위한 의료적 혜택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함.
<p>장애 학생들의 의료 지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들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국가 차원의 법 제정, 제도 정비가 필요함. • 그러나 실제 학생들의 의료 지원은 지역사회의 의료 환경 고려 등 지역 차원의 여건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당 지역에서의 차별화된 정책, 모델 개발 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일본도 국가 차원에서 장애 학생들을 위한 법 제정 등이 이루어졌으나 지역마다 지원 수준 등은 천차만별인 것이 사실임. • 서울시는 규모가 큰 도시인만큼 서울시 차원의 차별화된 지원 제도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p>지바현의 경우 장애학생들에 대한 의료 지원이 간호사와 교사의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사들이 의료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불만이나 한계점은 없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학교에서 처음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 특수학교 교사들이었음. 그래서 초창기부터 교사들이 의료 지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역사가 있음. • 지금은 교사들의 수가 줄어들고 간호사가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교사들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 지원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또한 위험한 치료의 경우에는 간호사가 전담하고 있고 교사가 할 수 있는 치료 유형은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중도중복 장애학생들의 경우 교육 활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간호사와 교사들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은 중요하다 하겠음.

□ 기관 방문에 따른 시사점

- 그동안 한국의 특수교육은 장애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이번 학교 방문을 통해 중도중복 장애학생과 같이 장애정도가 심각해 교육활동에서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우리나라도 2022년 6월에 특수교육대상자 유형에 중도중복장애가 추가되고, 2024년 2월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중도중복 장애 학생이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며,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대병원과 협약을 맺어 특수학교 3곳에 상주 간호사를 배치한 상황임.
- 그러나 서울은 한 학교에 1명의 간호사만 파견하고 있어 다수의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학교 간호사가 모두 지원하기는 힘든 상황임. 더욱이 학교 간호사가 파견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학교 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학교에서 실질적인 의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의문임.
- 지바현 특수교육 시스템 및 동 기관의 운영 체계를 살펴보면, 학교 내에서 실질적인 의료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생수 대비 적절한 지원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학교 내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에 대한 법률상 명확한 면책 규정 마련 등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법 제정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의 지원 근거 마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 학교 구성원과의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차원에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학교 내에서의 의료지원이 종종 장애학생들에게는 의료 활

동 차원이 아닌 교육활동과 연계된 교육과정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방문 사진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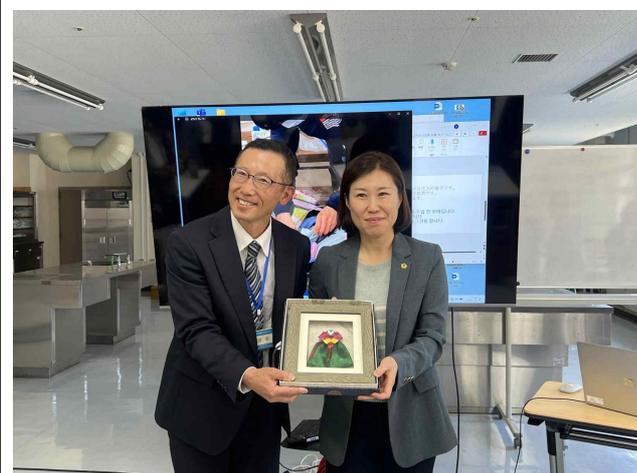
기관 프레젠테이션



질의응답(1)



질의응답(2)



기념품 전달



단체 기념 촬영

3

고도모노모리 인정어린이집

기관명	고도모노모리 인정어린이집 (こどものもり 認定こども園)	
방문일시	2024. 5. 15.(수)	
장소	고도모노모리 간담회실	
참석자	- 와카모리 마사시로 이사장 - 와카모리 타마에 원장 - 와카모리 키요이 부원장	

방문 활동 순서

- 주요 참석자 소개
- 와카모리 마사시로 이사장 및 이승미 위원장 인사말
- 일본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 과정 및 인정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 관련 설명
- 질의응답
- 주요 시설 탐방
- 기념품 전달 및 사진 촬영

기관 소개

- 연혁
 - 1971년 4월 미인가 시설인 '마마시 보육원'으로 개원하였음. 이후 1974년 학교법인 와카모리 학원이 '마마시 유치원'을 설립한 이후 약 30년간 지역의 유아 교육 및 보육 지원 기관으로 운영됨.
 - 2004년 11월에 사회 복지 법인인 사쿠라 협회가 설립 승인되면서 새로운 건물이 설립되었으며 이후 지역 내 대기하는 유아들이 없이

동 기관에 유아들이 등원할 수 있게 됨.

- 이후 2015년 4월, 인정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서 유치원, 보육소 기
증이 통합되면서 모든 유아들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

○ 인정어린이집 운영 배경

- 일본은 1990년 후반부터 유치원을 관리하는 문부성과 보육소를 관
리하는 후생성이 시설 공용화에 대한 지침 등을 마련하면서 유보통합
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
- 이후 교육과 보육을 일체화하여 일원화 시킬 수 있는 종합시설에 대
한 논의가 생기면서 2006년 기존 유치원 및 보육소 이외 제3의 시
설로 취학 전 교육과 보육을 일원화시킨 인정어린이집 제도 운영이
시행되었음.
- 동 기관은 1974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각각 운영하다가
2015년에 일본의 인정어린이집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두
시설을 통합하여 인정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음.

□ 주요 설명 내용 (설명자: 와카모리 마사시로 이사장)

○ 고도모노모리 운영 현황

- 인정어린이집은 일본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 취학전 유아들의
보육과 교육 문제에 대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동 기관은 부모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미취학 유아들
에게 교육 및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아울러 지역 내에서 가정 내 육아를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데 육아 고민에 상담, 부모와 유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 제공
등을 하고 있음.
- 동 기관은 유치원 유아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급식포함)까

지 교육 및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모가 추가로 돌봄 등을 원할 경우 오전 7시30분부터 오전 8시 45분까지, 오후에는 2시부터 7시까지 추가로 신청을 할 수 있음.

- 반면 보육이 필요한 유아의 경우 기본적으로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돌봄이 이루어지며, 토요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정오까지 돌봄이 이루어지고, 연장을 원하는 부모가 있을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평일에는 오후 7시, 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 보육 연장을 할 수 있음.
- 현재 동 기관에는 학생들이 0세부터 5세까지 총 155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보육기간에 해당되는 유아는 29명, 3세부터 5세까지 학생이 126명임.

[표-3] 고도모노모리 학생 및 교직원 현황

구분	유아수		교사수(시간제 돌봄인력)
영아	5명		5(1)명
1세	8명		4(2)명
2세	16명		
3세	반나절	81명	8(2)명
4세			
5세	종일	45명	
전체	155명		17(5)명
영어원어민 교사			2(0)명
관리자 및 학교 직원			13(5)명
전체 직원			32(10)

○ **고도모노모리 교육과정 (코너 시스템)에 대한 설명**

- 대부분의 유치원 및 보육원에서는 같은 나이대 아이들에 대한 수업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음. 그러나 유아의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동 기관은 인정어린이집으로 운영되기 전부터 “연령 간 육아 및 교육 (코너 시스템)”을 오랜 시간 실천해 왔고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나이가 많은 유아들은 어린 동생을 돌보고, 어린 동생들은 보살

핍을 받음으로써 친절과 배려를 배우게 됨. 이런 생황을 통해 나이가 많은 유아들은 책임감과 배려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이것은 말로 지시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배우게 됨.

- 동 기관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가 혼합된 그룹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활동에 함께 참여함. 특히 유치원, 보육원의 구분이 없고, 서로 돌보고 돕는 방법을 배우게 함. 즉 가족처럼 같은 환경에서 형제 자매처럼 자라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게 함.
- 또한 동 기관은 모든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너마다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관심사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운영함.
- 코너는 교육과정의 장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퍼즐, 점토 고예 등을 할 수 있는 '모델링 코너', 연극, 악기 연주회를 등을 할 수 있는 '표현의 코너', 야외에서 자전거, 그네, 미끄럼 등을 탈 수 있는 '정원의 코너', 작은 생물, 꽃, 채소 등을 볼 수 있는 '네이처 코너'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 코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3] 고도모노모리 코너 교육과정⁴⁾



4) 고도모노모리 홈페이지(<https://kodomonomori.ed.jp/index.html>)발취

□ 질의응답 주요 내용

질 문	주요 답변 내용
<p>현재 일본은 유보통합 정책 시행 이후 유치원, 보육소, 인정어린이집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일본은 앞으로도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유보통합 정책을 시행할 계획인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어린이집은 전체 유치원, 보육소를 통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를 통합하여 운영한 사례임. 궁극적으로는 모든 유치원과 보육소를 인정어린이집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인정어린이집 운영은 의무 설치가 아닌 현장 자율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기존 어린이집, 보육수가 자발적으로 쉽게 전환하지 않으며 그러다 보니 이원화가 아니라 삼원화 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관리,감독기관도 문부성, 후생성에 이어 내각부가 추가된 상황임. • 인정어린이집으로 유보통합을 시도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적으로는 여전히 기관 중복 등 비효율적인 면이 발생하고 있음.
<p>유보통합이 이루어진 인정어린이집의 경우 교사들의 자격 기준을 어떻게 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기관은 인정어린이집 유형중 ‘유보연계형’에 해당되므로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유치원교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같이 가지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인정어린이집 중 일부는 ‘유치원형’, ‘보육소형’, ‘지방재량형’의 다른 유형들도 존재함. 동 기관과 같은 유보연계형은 인가유치원 및 인가보육소가 연계하여 운영되는 형태인데 반해 ‘유치원형’은 ‘인가유치원’이 보육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육소를 허가받지 않은 시설임. • 반면 ‘보육소형’은 인가보육소이긴 하나 유치원은 허가 받지 않고 유치원 기능을 하고 있으며 ‘지방재량형’은 유치원 보육소 어느 쪽도 인가 없이 교육, 보육시설을 병합한 형태임. • 이러한 기관들의 경우에는 교사자격이 모두 상이한 상황임.
<p>동 기관은 유치원과 보육기관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합쳐진 것이 아니라 연령별 교육과정 등이 통합된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원은 인정어린이집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육아의 관점에서 생각하여 “집과 같은 따듯함”을 느끼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운영되었음. 따라서 가정에서와 같이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어린 동생들은 언니, 오빠 등으로부터 배려를 받음으로써 서로 서로 함께 성장하고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음.

질 문	주요 답변 내용
<p>로 보여짐. 이러한 교육과정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실천하면서 그 성과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경험에 더 접근하기 위해 유보통합 교육기관인 인정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음. • 유치원과 보육의 통합은 단순히 기관만의 통합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을 스스로 성장시킨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p>동 기관은 목재로 이뤄진 건물, 인테리어 등으로 자연과의 교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임. 본 원의 차별화된 생태교육 프로그램은 무엇 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원은 건축 디자이너와 직원이 오랜 시간을 거쳐 작업한 건물로 아이들이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을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 특별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이 있지 않지만 아이들이 항상 친구들과 계절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유치원 건물이 구성되어 있음. • 또한 정원, 유치원 주변, 복도, 화장실에는 정통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학생들의 감성을 키워주고 있음.

□ 기관 방문에 따른 시사점

-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 차원에서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모델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 보다 먼저 기관 통합을 시도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유보통합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특히 동 기관은 일본이 기존 유치원과 보육소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별도로 유치원 교육 및 보육을 일체화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기관(인정 어린이집)으로서 취학 전 교육과 보육을 일원화시킨 사례인바, 유보통합 이후 실제 유보통합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과정 및 운영 시스템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음.

-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앞서 유보통합을 시행한 일본이 궁극적으로 유치원과 보육소를 그대로 두고 인정어린이집이라는 제3의 통합기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유보통합은 결국 일원화가 아닌 삼원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해 관리 감독기관 및 기준도 일원화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발견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기관은 한 기관에서 취학 전 교육과 보육이 동시에 기능하고 있는 통합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초기 단계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기관 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 경우, 동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연령별 영아와 유아가 함께하는 교육과정, 유아들의 연령에 따른 교육 및 보육서비스의 통합 지원 사례 등은 향후 유보통합의 균형적 운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한편, 유보통합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일본의 유보통합의 방식이 기존 유치원, 보육소를 두고 제3의 통합기관을 신설하여 서서히 통합기관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그 결과 유보통합은 국가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못하면 성공적인 정책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 등이 제기됨. 즉, 다양한 이해 집단들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정책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점에 공감함.

□ 방문 사진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



기관 프레젠테이션



질의응답



현장시찰



기념품 전달



단체 기념 촬영

4

모리구치시립 사츠키학원

기관명	모리구치시립 사츠키학원 (守口市立さつき学園)	
방문일시	2024. 5. 16.(목)	
장소	모리구치시립 사츠키학원 회의실	
참석자	- 모리구치시 교육위원회 교육부 히라타 차장 - 모리구치시 교육위원회 교육부 이치카와 주관 - 모리구치시립 사츠키학원 하라다 교장	

□ 방문 활동 순서

- 주요 참석자 소개
- 하라다 교장 및 이승미 위원장 인사말
- 사츠키학원 초·중 통합학교 운영 및 학교 시설 지역사회 개방 현황 등 설명
- 질의응답
- 주요 시설 탐방
- 기념품 전달 및 사진 촬영

□ 기관 소개

- 연혁
 - 모리구치시 사츠키학원은 오사카부 모리구치시 가스가초에 위치한 모리구치시 최초의 의무교육학교⁵⁾*임.

5) * 의무교육학교(義務教育学校):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외에 초·중등 과정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학교. 의무교육학교는

- 2014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던 가스가 초등학교와 다키이 초등학교가 통합되어 사츠키 초등학교가 설립되었고, 이후 2016년에 사츠키 초등학교와 제3중학교가 통합되어 사츠키학원이 의무교육학교로 개교됨.
- 사츠키학원이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교육·문화·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개교 당시부터 지역 주민·보호자·학교 관계자가 다 같이 참여하였음.
- 사츠키학원에는 제3중학교 내에 있던 야간학급도 병설되어 있음. 야간학급은 오사카부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등 교육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그리고 사츠키학원은 야간학급 외에 간이식당, 지역 제휴실 등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학교가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음.

□ 주요 설명 내용 (설명자: 사츠키학원 하라다 교장)

○ 사츠키학원 현황

- 모리구치시에는 7개의 중학교, 12개의 초등학교, 1개의 의무교육학교가 있는데 동 기관이 모리구치시내 유일한 의무교육학교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 교육과정은 크게 전기과정, 후기과정, 야간과정 세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기과정은 1학년부터 6학년 과정으로 450명이 재학중이고 후기과정은 7학년부터 9학년 과정으로 197명이 재학중이며, 야간학급에는 124명이 재학중임.
- 일본에서는 의무교육학교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야간학급이 있는 의

총 9년 과정으로 동일한 학교장과 교원 조직으로 운영됨. 원칙적으로 의무교육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초등학교 교원 자격증과 중학교 교원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함.
일본 문부과학성은 의무교육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6년 '학교시설 정비 방침'을 개정하였음. 이는 초·중등 통합교육에 적합한 학교시설과 설계상 유의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학년 단계의 구분을 넘어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할 것 ▲아이들의 방과후 활동 공간을 확보할 것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무교육학교는 사츠키학원이 유일함.

- 2014년에 가스가 초등학교와 다키이 초등학교가 통합되어 사츠키 초등학교가 설립되었고, 이후 2016년에 야간학급이 있던 제3중학교가 통합되면서 사츠키학원으로 개교하게 됨.

○ 사츠키학원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 사회와 연결하면서 성장하고, 향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 목표이며 학교의 인재상은 인사를 잘하는 어린이, 감사할 줄 아는 어린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어린이임.
- 동 기관의 교육과정은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됨. 1단계는 1학년부터 4학년, 2단계는 5학년부터 7학년, 3단계는 8학년부터 9학년임. 이와 같이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초·중학교가 통합된 의무교육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발달과 성장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것임.
- 1단계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말하는 화법(상대방과의 대화 방법 등), 모든 과목의 기초 다지기이며,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고, 보다 심화된 탐구를 할 수 있는 역량 및 협동을 중시하며, 3단계에서는 주체적인 사고력과 표현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개개인이 학습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일반적으로 일본의 초등학교 5~6학년은 담임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의무교육학교인 동 기관의 경우 5~6학년도 7~9학년과 마찬가지로 과목 전담교사로부터 수업을 듣고 있음.
- 또한 동 기관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은 학년 간 교류가 활성화되어 중학생과 초등학생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임.
- 예를 들어 8학년 학생들이 직업 체험을 갔다 온 후 6학년 학생을 대

상으로 발표를 하고, 7학년 학생과 4학년 학생이 함께 장애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수업을 하고, 9학년 학생들이 2학년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독서 시간이 있는 등 중학생과 초등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학년별 연계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음. 또한 학생간 연계뿐만 아니라 초·중학생들과 야간학급 학생들간의 연계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음.

○ 학교와 지역과의 연계 활동

- 동 기관의 학교운영협의회는 학교가 지역과 어떤 연계활동을 할 것인지 논의하고 연구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 기관은 2022년도에 이러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의 우수사례로 문부과학성으로부터 장관상을 받기도 하였음.
- 이와 같이 동 기관의 학교운영협의회가 활성화된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사츠키 프렌즈” 제도가 활성화 되었기 때문임.
- ‘사츠키 프렌즈’인 자원봉사자들은 단순하게는 1학년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하거나, 교외 교육과정을 시행할 때 함께 참여하여 교사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서는 학교 시설 및 정원 정비를 할 때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교과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저학년 학생들의 학습지원, 옷수선 등 가정과 수업 등에서는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등 학교 활동 전반에 걸쳐 지역 주민인 사츠키 프렌즈들이 활동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동 기관에는 학교의 일정을 기록한 ‘사츠키 커뮤니티 캘린드’가 있는데 이 자료는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사츠키 프렌즈에게도 제공하여 함께 학교의 주요 행사 및 일정 등을 공유하고 있음.
- 이러한 사츠키 프렌즈 활동은 활동 이후 항상 피드백을 받는 등 지역 주민의 학교 활동 참여에 대한 사후관리도 이루어지고 있는 등 ‘사츠키

키 프렌즈' 활동은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되고 있음.

[표-4] 사츠키 프렌즈의 활동



○ 야간학급에 대한 설명

- 현재 동 기관의 야간학급에는 일본인 뿐 만 아니라, 한국인, 중국인, 필리핀인, 파키스탄인, 네팔인 등 다양한 국가에 온 사람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음.
- 이전에는 가정형편 등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교육과정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야간학급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최근에서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일본어 등의 교육을 위해 야간학급에 진학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그 외에도 사츠키학원에서는 식당 및 지역연계실 등을 정비하여 일부 학교 시설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가 지역사회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질의응답 주요 내용

질 문	주요 답변 내용
<p>학교복합화 시설로서 사츠키학원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이 학교복합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일부 개방하여 공유하는 사례는 다수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학교복합화 시설과 사츠키학원의 차이점은 사츠키학원은 학교 시설을 단순히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교 교육 활동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야간학급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문화, 복지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사회에서 학교가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음.
<p>사츠키학원이 초·중통합학교인 의무교육학교로 지정된 배경은 무엇인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학교 시설의 지역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1990년에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음. • 그 과정에서 먼저 국가 차원에서 학교 규모의 적정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소규모 학교를 연합하는 등 학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는데 의무교육학교도 이러한 학교 간 연합체의 한 유형으로서, 학교 통합을 계기로 학교 시설 활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시도의 하나로 사츠키학원이 의무교육학교로 지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p>한국에서는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사츠키학원에서는 학교시설 개방 등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은 없었는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츠키학원은 학교 내 지역시설이 함께 공존하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일본의 다른 학교복합화 시설의 경우에는 학교시설과 도서관 등의 지역 시설 등이 함께 공존하면서 공유하는 사례 등이 다수 있음. • 이러한 복합시설의 경우에는 학교시설과 지역시설 등의 이용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한편 사츠키학원은 ‘사츠키 프렌즈’라는 제도를 통해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의 경우, 사전에 신청서 등을 받아서 선정되기 때문에 학교에 자주 오는 지역 주민의 경우 인적 사항 등이 파악되어 있음.

질 문	주요 답변 내용
<p>야간학급의 경우 입학하는데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졸업하면 주간 중학교와 같은 자격이 주어지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학급은 현재 모리구치시에는 본 기관에만 설치되어 있으나 일본 전체로 봤을 때 약 30여개가 설치되어 있고, 문부과 학성에 관련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음. • 야간학급에 입학하기 위해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거나 외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 입학하는 경우가 다수임. • 또한 야간학급은 주간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주5일 수업이 있으며 주간 중학교와 같은 과목을 배우고, 모든 과정을 마치면 중학교 졸업자격을 얻을 수 있음.
<p>서울에서도 학령 인구감소 등으로 일본의 의무교육 학교와 같은 통합 운영학교가 운영되고 있음. 서울보다 먼저 의무교육 학교를 운영한 입장에서 초중통합 학교 운영시 고려해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에서는 초중통합학교의 형태가 동 기관과 같은 의무교육 학교 이외 '일관형 학교'도 존재하는데 두 기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관형 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장 및 교직원이 따로 있으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과정으로 운영되나 의무교육학교는 동일한 학교장과 교원 조직으로 운영되며 근무하는 교원은 초등학교 교원 면허와 중학교 교원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함. • 따라서 의무교육학교의 교육과정은 동 기관처럼 학생들의 발달 과정을 고려하여 4-3-2(상기 설명한 3단계 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이 가능함. • 이와 같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통합은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교 규모 적정화 차원에서 시작되긴 하였으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학생들의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측면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학년 간 소통의 문제인데, 교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중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경우 1~2학년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교원들 간, 학년 간 교류가 활성화 되게 하는 것도 초·중 통합학교의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함.

□ 기관 방문에 따른 시사점

- 학교복합화시설의 주요 목적은 학교시설을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교육부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학교시설의 지역 사회와의 공유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시설개방 비율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방하는 시설의 범위도 운동장 및 체육관에 한정되어 있음.
- 반면 일본은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를 우리나라보다 앞서 겪으면서 국가 차원에서 학교시설의 개방을 넘어 학교시설이 지역 사회의 공공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하였음.
- 이에 동 기관에서와 같이 학교는 지역 주민들이 단순히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 “사츠키 프렌즈” 등의 활동 등을 통해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또한 이를 통해 학교가 지역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면서 인구 감소로 소멸되는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역할까지 하고 있음.
- 아울러 동 기관이 학교에서 중학교 야간학급을 개설하여 지역 주민들 중 중학교 교육이 필요한 다양한 국적의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시행하는 것은 학교가 단지 의무교육 대상인 학생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평생 교육시설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서울은 아직 학교시설 개방 등에 대해 학생 학습권 및 안전 문제 등으로 반대 여론이 큰 상황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 이로 인한 학교 통폐합 및 폐교, 지역 소멸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학교 시설 및 기능이 지역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향후 서울 지역학교 시설의 활용, 역할 등에 대해 중 장기적인 관점

의 대응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방문 사진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



기관 프레젠테이션



현장시찰



질의응답



기념품 전달



단체 기념 촬영

5

교토국제만화박물관

기관명	교토국제만화박물관 (京都国際マンガミュージアム)	
방문일시	2024. 5. 17.(금)	
장소	교토국제만화박물관 강당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토국제만화박물관 가츠시마 사무국장 - 교토국제만화박물관 노다 차장 - 교토국제만화박물관 나카무라 담당 	

 방문 활동 순서

- 주요 참석자 소개
- 교토국제만화박물관 가츠시마 사무국장 및 이승미 위원장 인사말
- 사츠키학원 초·중 통합학교 운영 및 학교 시설 지역사회 개방 현황 등 설명
- 질의응답
- 주요 시설 탐방
- 기념품 전달 및 사진 촬영

 기관 소개

- 연혁
 - 교토국제만화박물관은 2000년대 초기, 교토 세이카대학교에 만화학회가 생기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설립 논의가 시작됨.
 - 2003년 4월, 세이카대학교가 교토시에 동 기관 설립에 관한 계획서

를 제출하고, 교토시는 폐교된 다츠케이 초등학교 건물의 리모델링 예산을 지원하고 30년간 무상 임대하기로 결정함. 그리고 박물관은 세이카대학교에서 운영하며, 특히 세이카대학교 내 국제만화연구센터가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2006년에 개관하게 되었고, 박물관에는 만화사서, 국제만화연구센터에서 파견하는 만화연구자 등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토국제만화박물관의 모든 만화자료는 기증에 의한 것이며, 기증대상은 메이지(1868년~1912년) 시대부터 현대까지로, 자료수집에 있어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지는 않고 일단 전수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인력 및 예산 문제로 보관과 분류체계에 특별한 방식을 두고 있지는 않고, 도서관에 입수되는 순서대로 바코드를 찍어 보관하고 있음.
- 교토국제만화박물관은 자료 구입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없고 대부분 기증에 의존하고 있어 기관에서 필요한 자료들이 입수되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수장고 공간이 한정적이라 다른 만화도서관과의 공동수장고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고만화의 디지털화작업은 국가로부터 대규모의 보조금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립 도서관과의 협업 등 국가 차원의 논의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음.
- 교토국제만화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만화연구임. 만화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 문화연구에 있어서의 학제간 연구 등임. 두 번째 역할은 박물관 운영으로 만화도서와 관련된 자료보관, 만화문화연구결과 전시 등임. 세 번째 역할은 수준 높은 만화연구물을 배출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훈련임. 이를 위해 만화연구자들과 학생들의 연계 활동, 창작자 및 큐레이터, 도서관 사서 육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동 기관의 역할 중 하나는 만화와 관련된 새로운 산업의 창조이며, 이를 위해 정부, 학계와의 공동협력 등을 통해 만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주요 설명 내용 (설명자: 가츠시마 사무국장)

○ 일본의 폐교 활용 현황

- 문부과학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총 8,580개 학교가 폐교되었는데 그 중 약 64%(5,481개교)가 다른 시설로 활용되고 있음.
- 지난 20여년 간 한 해 최소 281개교에서 최대 595개교가 폐교되었으며 평균적으로는 매년 약 450개교가 폐교되었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가장 많이 폐교되었고, 그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폐교가 발생하였음.
- 이와 같은 폐교 증가로 인해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0년부터 「모두의 폐교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여 폐교 시설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였음.
- 특히 문부과학성은 폐교 시설에 대한 집약된 정보(연적, 외관사진, 분양조건 등)를 공개하고, 토지의 용도변경, 리모델링 및 증축에 필요한 서류, 보건소 제출 서류 등 여러 행정기관에 걸쳐있던 소속 창구를 일원화하여 공급자와 사용자 간 매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폐교 활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교토국제만화박물관은 「모두의 폐교 프로젝트」 중 하나의 사업으로, 1995년에 폐교된 ‘다츠이케 초등학교’를 문화시설로 활용한 사례임. 일본의 폐교 활용 용도를 살펴보면, 학교(대학 제외)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사회체육시설이나 사회교육시설로 활용되고 사례가 많음.
- 교토국제만화박물관은 문화시설로 활용된 사례로서 폐교가 학교 및 체육시설 이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다츠이케 초등학교를 국제만화박물관으로 활용하게 된 배경

- 1868년 에도 시대가 끝나고 메이지 시대가 시작되면서 일본의 수도가 교토에서 동경으로 바뀌게 되면서 당시 교토시는 교토가 더 이상 일본의 수도가 아닌 상황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그런 맥락에서 교토 지역에 다수의 초등학교들이 신설됨.
- 동 기관의 전신인 다츠이케 초등학교도 그 당시 신설된 학교로,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하기 이전에 신설된 학교임.

[그림-4] 다츠이케 개교(1869년) 당시 교훈 및 교가



- 당시 현지 주민들의 기부를 통해 초등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역 주민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1995년에 학생수 감소로 인해 폐교되었음.
- 학교 건물 및 토지 등은 교토시 소유이긴 하였으나 학교 설립이 주민들의 기부로 이루어졌고, 지역 주민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이었기에 폐교된 이후에 학교 시설 활용을 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음.
- 그런 과정에서 교토의 세이카 대학에서 학교 시설을 만화연구 및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제안을 하게 되면서 교토시와 세이카 대학의 공동사업으로 국제만화박물관을 개관하게 됨. 운영 방식은 세이카 대학이 교토시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그리고 당시 중간 협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 교토 교육위원회였는데 현재는 담당 관할이 산업관광부로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교토시가 동 기관을 교육의 관점이 아니라 문화·관광 산업 차원에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교토시가 세이카 대학에 학교 건물을 임대할 당시 교토시, 세이카대학, 그리고 ‘다츠이케 지역 연합회’가 포함된 “3자 협의회”가 구성됨. 이와 같이 폐교 활용 협의회에 지역 연합회가 포함된 것은 다츠이케 학교가 1869년에 설립된 학교이다 보니, 지역 주민들도 학교 시설이 어떤 용도로 활용될 것인지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 것임.
- 그리고 그 결과 “3자 협의회”에서는 학교 건물을 세이카 대학에 임대하더라도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들이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되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3자 협의회는 기관 운영 등에 있어서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있으며 이 회의에서는 지역 축제 등 지역과 관련된 큰 행사 등이 있을 경우, 그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교육 및 회의 등을 위한 공간으로 동 기관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동 기관은 박물관의 기능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지역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박물관에 들어오는 입구도 박물관 이용객이 사용하는 입구 이외 지역 주민들의 활용을 위한 별도의 입구를 마련하고 있음.
- 한편 동 기관의 구성원은 현재 세이카 대학 직원이며 운영비는 대학에서 지급하고 있음. 세이카 대학은 1968년에 세워진 대학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화학부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임.
- 1970년대에는 일본에서 만화를 연구하는 기관은 없었으나 세이카 대학에서는 이미 1972년에 이미 만화 클래스가 개설되었고 이후 2000년대 만화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를 보다 충실히 하자는 여론이 발생하면서 세이카대학 내에 만화 학과가 생기게 되었

고, 여기서 수집된 만화 관련 자료가 20만점에 이르게 됨.

- 이에 세이카 대학은 교토시와 자료 관리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학교 시설을 만화도서관으로 이용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만화도서관 설립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어났고, 교토시와 세이카 대학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만화 전문가를 초빙하여 만화의 문화적 가치를 설명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만화도서관 설립에 대해 충분한 공감과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이카대학, 교토시, 지역 주민협의체는 만화도서관이 아닌 만화박물관으로 폐교 시설을 활용하는데 최종 협의하게 됨.

□ 질의응답 주요 내용

질 문	주요 답변 내용
<p>한국은 현재 폐교활용을 지역교육청에서 주도하고 있음. 일본은 폐교 관리 및 활용을 어느 기관에서 주도하고 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학생수 감소로 인해 연간 수백개의 폐교가 발생하면서 초기 시군별로 관리하던 폐교 관리 및 활용이 문부과학성 주도로 변화하게 되었음. • 문부과학성은 2010년에 “모두의 폐교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문부과학성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와도 협업하여 학교시설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음. 동 기관도 문부과학성의 “모두의 폐교 프로젝트” 중 하나의 사례임. • 특히 문부과학성은 홈페이지에서 전국 폐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방공공단체와 폐교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등을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p>폐교는 다양한 유형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 어떤 용도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에서 폐교 시설은 공공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교육시설이나 공공체육시설로 활용되는 비율이 높은 편임. • 동 기관처럼 박물관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있는데,

질 문	주요 답변 내용
	<p>‘기후현 미노시’의 종이 박물관, 미야자키현에 장어 연구소·박물관 등의 사례가 있음.</p>
<p>다츠이케 초등학교를 만화 박물관으로 개관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의 폐교활용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항상 활발한 것이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츠이케 초등학교는 설립이 지역주민들의 기부로 세워진 학교며, 이 지역에서 200년이 넘는 초등학교라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많은 학교임. • 이런 학교가 폐교되었기에 지역 주민들은 학교가 어떤 용도로 활용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교토시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기부로 개교된 학교이므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p>서울에도 만화고등학교 등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과 동 기관과의 교류가 있는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직 서울에 있는 만화고등학교와는 교류를 한 적은 없으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함. • 단지 나라마다 만화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름. 한국은 웹툰 등이 활성화되어 있는 등 국가마다 만화문화에 대한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p>폐교시설을 만화박물관으로 개관했지만, 실질적인 시설 기능을 보면, 박물관 기능 이외에 지역 활동의 거점 시설, 대학의 연구시설 등으로도 활용되는 점이 특징으로 보여짐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학교시설을 공공시설로서 함께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 이런 맥락에서 폐교시설도 활용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역 주민들의 폐교 시설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동 기관도 만화박물관으로 개관하기까지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동 기관을 박물관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사 및 문화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었음.

□ 기관 방문에 따른 시사점

- 일본은 2010년부터 “모두의 폐교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폐교 활용 및 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교육부에서 매년 시도교육청 별로 폐교재산 현황 조사를 시행하여 폐교된 학교수, 폐교 활용 등을 점검하고 있음.
- 그러나 폐교 결정 이후 폐교 활용까지의 과정은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고 지역교육청마다 추진 과정 등이 상이한 상황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현재까지 폐교된 학교수는 총 7개교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폐교수는 가장 낮은 상황이나 2020년대 들어서는 서울지역에서도 고등학교(도봉고)가 폐교되는 등 폐교수는 향후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현재 서울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폐교를 다른 시설로 활용하기로 결정한 후 시설 설립을 위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폐교가 발생 된 이후 폐교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 및 정보제공 등의 체계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임.
- 반면 만화박물관인 동 기관은 폐교 시설 용도를 확정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3자 협의회(교토시, 지역주민협의회, 폐교활용자)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폐교 활용 용도를 결정한 것으로 서울시에도 폐교 활용 시설을 구축하기 이전 어떤 시설로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동 기관은 폐교를 만화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박물관 활용 이후에도 일부 시설 등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 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세이카 대학에서는 동 시설을 만화 연구소로도 활용하고 있는 등 폐교를 박물관뿐 아니라 지역의 공공시설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폐교 활용시설의 공공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

임.

- 아울러 학교는 폐교되었으나, 만화박물관에는 다츠이케 학교 관련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어 동 건물을 통해 과거 다츠이케 학교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음. 이처럼 학교는 폐교되었으나 폐교 활용시설을 통해 학교, 그 지역의 교육 역사 등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시관 등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으로 향후 서울시 폐교 활용 시설 구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방문 사진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



기관 프레젠테이션



질의응답



현장시찰



기념품 전달



단체 기념 촬영

Ⅲ 방문 기관별 주요 정보 및 활동 사항

1. 국립국회 국제어린이도서관

- 일 시 : 2024. 5. 14.(화)
- 위 치 : 도쿄토 다에토구 우에노 공원 12-49
- 기관 현황 및 주요 사항
 - 2001년 1월, 국립국회도서관의 지부 도서관으로 설립
 - 국립국회도서관법에 근거한 일본 유일의 국립 아동서전문도서관으로 어린이 책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국제어린이도서관은 ‘아동서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어린이와 책의 만남의 장소로서의 역할’, ‘어린이책 뮤지엄으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으며 이 역할들은 서로 보완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먼저 ‘아동서전문도서관’으로서 국내 간행 아동서와 교과서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약 160개 국가 등의 아동 관련 서적 및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약 70만점에 이르고 있음.
 - 또한 ‘어린이와 책의 만남의 장소’로서 시설 증개축을 통해 ‘어린이방’, ‘청소년연구실’을 마련해 연령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정보 리터러시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을 위한 자료 전시 공간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어린이책 뮤지엄’으로서 책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행사를 개최하고 다양한 주제로 연 4회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음.
 - 한편 동 기관은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은 초등학생까지의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 이야기책 등이 배치되어 있고 ‘이야기방’이라는 곳에서는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2층은 중고생들을 위한 책들이 마련된 청소년연구실이 있으며, 아동

서를 연구하기 위한 ‘아동서연구실’ 및 메이지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어린이책의 흐름을 전시하고 있는 ‘아동서 갤러리’를 마련하고 있음.

- 3층은 도서관의 역사와 매력을 소개하는 전시회 또는 음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문화홀이 있고, 다양한 테마로 어린이책을 소개하는 책 뮤지엄이 조성되어 있음.

○ 현장 시찰에 따른 시사점

-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시설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서 동 기관이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물리적 공간이 아닌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정보 리터러시 교육, 그 외 지역 문화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책, 음악, 미술 등의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함.
- 즉, 어린이도서관은 독서 공간뿐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지역 주민에게 문화 공간으로도 적극 활용될 필요성이 있으며 도서관 서비스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어린이, 청소년에게 디지털 자료와 기술을 비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함.
- 또한 국제어린이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능은 도서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읽고 공유해야 할 가치 있는 자료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며 동 기관은 국제어린이도서관으로서 다양한 언어의 아동서를 소장하고 있고, 이를 인근 공공도서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됨.
- 이러한 연계 기능은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이 활성화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 및 IT기기의 발달로 디지털 저작물의 생성, 유통, 관리는 도서관이 지향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보임.
- 현재 서울시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속기관으로 국립 어린이청소년도

서관이 강남구에 있으며, 그 외 지자체별로 22개의 공공 어린이도서관이 운영 중임. 그러나 기관마다 운영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며 다수의 공공 어린이 도서관이 연계되어 운영되지는 못하는 상황임. 국립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을 비롯하여 지자체별 어린이도서관의 연계 방안, 그 외 해외 어린이박물관과의 교류 및 관련 자료들의 연계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시찰 사진



단체 사진 촬영(1)



외부 공간 시찰



내부 공간 시찰(1)



내부 공간 시찰(2)

2. 오사카 통학로 시찰

○ 일 시 : 2024. 5. 17.(금)

○ 장 소 : 오사카 통학로

○ 현황 및 주요 사항

- 2018년 6월 오사카에 진도 6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학교 수영장 외벽이 무너져 동 학교 4학년 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
- 조사 결과, 이 학교는 수영장 외벽을 규정보다 높게 불법 증축하면서 안전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짐. 이후 행정기관에서는 시내 모든 학교의 외벽 조사를 실시하였음. 오사카에서 이 사건이 주목된 것은 사고 현장이 '통학로'였기 때문임.
- 일본은 2012년에 학생들이 통학로에서 중대한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관계부서(국토교통성, 문부과학성, 경시청) 합동으로 통학로 안전을 위한 체계를 정비함.
-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은 국토교통성, 문부과학성, 경시청 등이 합동으로 '학교의 위험지점을 추출'하고 대책이 필요한 지점을 찾아 통학로를 변경하고, 교통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도로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음. 또한 사후 관리를 위해 시정촌 교육위원회와 학교에서는 지역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통학로 안전 대책안은 마련하였음.
- 안전 대책안에는 방호책 설치, 스쿨존 노면표시 및 표식 등 설치, 보도정비 및 신설, 통학로 변경, 교통안전교육모델학교 등을 지정하여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시행안 등이 담겨짐.
- 또한 지역주민들이 초등학교의 등·하교를 지원하여 지역 아동을 보호하도록 하고, 학교, 경찰, 시민단체 등이 연계하여 교통안전 및 방법 관점에서의 안전맵을 개발하기도 하였음.

○ 현장 시찰에 따른 소감 및 시사점

- 우리나라는 보차 미분리등으로 통학로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

리나라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023년 2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계획”이 발표되기도 하였음.

- 그러나 아직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에도 인접도로에 보도가 없는 학교가 상당 수 있는 등 통학로에 보행공간 확보 및 보도 설치 등 통학로 안전 방안을 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현재 교통안전점검은 행안부, 교육부, 교육청 등에서 각각 추진되는 상황임. 일본이 학교의 위험지역을 조사하고 추출하는 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하고, 각각의 조사 자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후 대책 방안 마련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통학로 안전방안 마련시에도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임.

○ 시찰 사진



현장 시찰(1)



현장 시찰(2)



현장 시찰(3)



현장 시찰(4)

IV 주요 시사점 및 의정활동 활용계획

□ 주요 시사점 및 성과

○ 서울시 교육정책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사례 수집 및 분석

- 저출산 및 학생 수 극감 시대, 지역사회에서의 학교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중·장기 방안 마련 필요

▶ 도쿄도의 주요 교육 목표 중 하나가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협력을 통한 학생 육성임. 이러한 지방 교육기관의 정책에 의해 학교에서는 학교 시설의 단순한 개방을 넘어 학교시설이 지역의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음. 또한 야간 시간 등을 활용해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 교육시설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를 비롯하여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 이로 인한 학교 통폐합, 폐교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일본의 사례를 통해 향후 학교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 협력하며 함께 상생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및 대책 방안 마련 필요

- 유보통합,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정책 방향 및 통합 기준 마련 필요

▶ 일본은 유보통합의 한 형태로 ‘인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통합 이전에 유보통합의 시범적인 운영 형태로 ‘인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완전한 형태의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해 ‘유치원’, ‘보육소’, ‘인정어린이집’ 등 세 가지 유형의 기관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완벽한 유보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현재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

점에서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정책 방향 및 기준 마련을 위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 ‘인정어린이집’의 운영 방식 및 교육과정은 향후 우리나라가 유보통합을 시행했을 때 초기 모델일 될 것으로 예측됨. 금번 방문한 인정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과 보육소를 단순히 물리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니라 유아들의 교육과정도 통합하여 초중등 통합운영학교와 같이 운영되는 점은 향후 유보통합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중 중증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 범위 및 방안 마련 필요

- ▶ 그동안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관심은 일반학생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높았음. 반면 장애학생들 중 중도중복 장애 등 장애 정도가 심각하여 통합교육이 불가능한 학생들을 위한 지원 정책 및 사업은 부족한 실정임. 중증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의료지원을 받으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2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되어 장애학생들이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학교 내 의료 사고 책임 소재 문제 등 실질적인 의료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폐교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

-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폐교 활용 계획 수립을 폐교 된 학교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폐교 결정 기준, 폐교 시설 활용 용도 결정, 관련 절차 등 전반적인 폐교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폐교 시설 활용 용도 결정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임.

⇒ 일본의 경우, 폐교 관리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폐교 시설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교육청 이외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오랜 시간 논의해서 결정하고 있음. 폐교 시설이 지역사회에 다양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과정은 서울시교육청 폐교 관리에 좋은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임.

- 통합운영학교, 물리적 통합이 아닌 교육과정 통합 및 연계 필요

▶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적정규모 학교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과 중학교 등을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체제를 유지한채 건물 등만을 합쳐 운영하는 형태임. 일본의 통합운영학교라고 할 수 있는 의무교육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자체적으로 4(1학년~4학년)-3(5학년~7학년)-2(8학년~9학년) 학년제로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향후 학생수 감소 등으로 서울시에서도 통합운영학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일본의 의무교육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신규 교육정책 아이디어 발굴

- 중증 장애 학생들의 의료지원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조례 제정 검토
- 폐교 활용 시설 결정에 대한 협의체(교육청, 학교, 지역사회 등) 구축 모델 검토
- 학교복합시설 등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다양한 운영 모델 검토

- 서울시교육청(각급 학교 포함)과 방문 기관과의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도쿄도 문교위원회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회의 지속적인 협력 가능성 확인
 - 교토 국제만화박물관과 서울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등과의 교류 가능성 확인

□ 의정활동 활용계획

- 저출산, 학생수 감소로 인한 근본적인 교육정책 변화 요구
 -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 문제로 교육정책 추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우리나라에 앞서 저출산 문제 등을 경험한 일본을 방문하여 학교 시설 개방 등의 관련 정책 등을 검토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
- 유보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방안 마련 및 논의 사항에 대해 교육부에 적극적 건의 및 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인 검토
 - 최초 정책 수립 당시 일관적인 정책 방향 및 방안 마련 필요, 전체 통합을 할 것인지, 일본과 같이 시범운영 등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일관된 정책 방향 마련에 의견 제시
- 한-일본 국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및 지원
 - 도쿄도의회, 국제만화박물관, 특수교육지원학교 등 방문기관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 서울시교육청과 일본 기관 간의 교류 추진을 위한 정보 제공

V 방문기관 및 관련 기관 정보

○ 웹사이트 등 기타 자료

- 방문 기관 또는 시찰기관 홈페이지

- ▶ 도쿄도의회 : <http://www.gikai.metro.tokyo.lg.jp>
- ▶ 후나바시 나츠미 특별지원학교: <https://cms2.chiba-c.ed.jp/natsumi-sh/>
- ▶ 인정어린이집 고도모노모리 : <https://kodomonomori.ed.jp/index.html>
- ▶ 모리구치 시립 사츠키학원 : <https://www.city.moriguchi.osaka.jp/kakukanoannai/moriguchishikyoikuiinkai/gakko/gimukyoiukugakko/satsukigakuen/index.html>
- ▶ 교토국제만화박물관 : <https://kyotomm.jp/>

- 기타 페이지

- ▶ 사이타마현 보육사·보육원 지원 센터 중 관내 기관 소개 : <http://saitama-hoiku-shigoto.com/hoikuen/detail.asp?s=105>
- ▶ 일본 문부과학성 폐교시설 활용 실태조사 및 여유교실 활용 실태조사 결과: https://www.mext.go.jp/a_menu/shotou/shugaku/detail/1354768.htm
- ▶ 우리나라 2023년 폐교재산 활용 현황: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boardSeq=9487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2&opType=N>
- ▶ 일본 문부과학성 「2023년 특별지원교육 실태조사」 : https://www.mext.go.jp/a_menu/01_m.htm
- ▶ 일본 국립 특수교육연구소: <https://www.nise.go.jp/nc/database>

VI 출장경비 정산내역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공무원 여비 규정」 등
 - 의원별, 직원 직급별, 도시 등급별 국외 여비 지급 기준 적용
-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 의원 및 직원 1인당 최대 400만원 한도 예산배정

집행예산

구분	집행액(원)	비고
의원여비	28,448,450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의회운영 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원국외여비(205-04)
직원여비	8,691,960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상호결연 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국외업무여비(202-03)
사무관리비	5,093,680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상호결연 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3)
의정운영공통경비	3,000,000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의회운영 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15,752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상호결연 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합계	47,449,842	

□ 세부내역

○ 의원여비 청구액: 28,448,450원

성명	예산액 (한도액)	여비 산출 내역						
		합계	운임(원)		체재비(\$)			
			항공	신칸센(철도)	소계	숙박비	식비	일비
계	44,000,000	28,448,450	5,735,400	1,683,000	20,585,860	11,945,450	7,067,930	1,572,480
					\$15,317	\$8,888	\$5,259	\$1,170
이승미	4,000,000	2,540,820	520,100	153,000	1,867,720	1,081,920	641,640	144,160
					\$1,360	\$926*0.85=\$788 (223*2박) +(160*3박)	\$468 (107*2일+107* 2/3식)+(78*2 일+78*1/3)	\$105 \$35*6일/2
고광민	4,000,000	2,540,820	520,100	153,000	1,867,720	1,081,920	641,640	144,160
					\$1,360	\$926*0.85=\$788 (223*2박) +(160*3박)	\$468 (107*2일+107* 2/3식)+(78*2 일+78*1/3)	\$105 \$35*6일/2
김혜영	4,000,000	2,540,820	520,100	153,000	1,867,720	1,081,920	641,640	144,160
					\$1,360	\$926*0.85=\$788 (223*2박) +(160*3박)	\$468 (107*2일+107* 2/3식)+(78*2 일+78*1/3)	\$105 \$35*6일/2
심미경	4,000,000	2,540,820	520,100	153,000	1,867,720	1,081,920	641,640	144,160
					\$1,360	\$926*0.85=\$788 (223*2박) +(160*3박)	\$468 (107*2일+107* 2/3식)+(78*2 일+78*1/3)	\$105 \$35*6일/2
이새날	4,000,000	2,540,820	520,100	153,000	1,867,720	1,081,920	641,640	144,160
					\$1,360	\$926*0.85=\$788 (223*2박) +(160*3박)	\$468 (107*2일+107* 2/3식)+(78*2 일+78*1/3)	\$105 \$35*6일/2
이종태	4,000,000	2,540,820	520,100	153,000	1,867,720	1,081,920	641,640	144,160
					\$1,360	\$926*0.85=\$788 (223*2박) +(160*3박)	\$468 (107*2일+107* 2/3식)+(78*2 일+78*1/3)	\$105 \$35*6일/2
이희원	4,000,000	2,555,120	534,400	153,000	1,867,720	1,081,920	641,640	144,160
					\$1,360	\$926*0.85=\$788 (223*2박) +(160*3박)	\$468 (107*2일+107* 2/3식)+(78*2 일+78*1/3)	\$105 \$35*6일/2

성명	예산액 (한도액)	여비 산출 내역						
		합계	운임(원)		체재비(\$)			
			항공	신칸센(철도)	소계	숙박비	식비	일비
채수지	4,000,000	2,540,820	520,100	153,000	1,867,720	1,081,920	641,640	144,160
					\$1,360	\$926*0.85=\$788 (223*2박) +(160*3박)	\$468 (107*2일+107* 2/3식)+(78*2 일+78*1/3)	\$105 \$35*6일/2
최유희	4,000,000	2,540,820	520,100	153,000	1,867,720	1,081,920	641,640	144,160
					\$1,360	\$926*0.85=\$788 (223*2박) +(160*3박)	\$468 (107*2일+107* 2/3식)+(78*2 일+78*1/3)	\$105 \$35*6일/2
전병주	4,000,000	2,540,820	520,100	153,000	1,867,720	1,081,920	641,640	144,160
					\$1,360	\$926*0.85=\$788 (223*2박) +(160*3박)	\$468 (107*2일+107* 2/3식)+(78*2 일+78*1/3)	\$105 \$35*6일/2
우형찬	4,000,000	3,025,950	520,100	153,000	2,352,850	1,383,980	804,110	164,760
					\$1,714	\$1,185*0.85 =1,008 (282*2박)+(207* 3박)	\$586 (133*2일+133* 2/3식)+(99*2 일+99*1/3)	\$120 \$40*6일/2

※ 산출기준

- ▶ 기준환율 : USD 1 = 1,373원 ('24. 4. 26. 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 체재비 산정 : 일비 6일, 숙박비 5일, 식비 15식(출발일_2식, 도착일_1식)
- ▶ 국가등급 : 가등급(도쿄), 나등급(오사카)

○ 직원 여비 청구액: 8,691,960원

성명	예산액 (한도액)	여비 산출 내역						
		합계	운임(원)		체재비(\$)			
			항공	신칸센(철도)	소계	숙박비	식비	일비
계	16,000,000	8,691,960	2,084,600	612,000	5,868,760	3,483,640	1,901,280	483,840
					\$4,637	\$2,592	\$1,415	\$360
심혁보	4,000,000	2,176,140	524,300	153,000	1,498,840	889,700	485,570	123,570
					\$1,092	\$763*0.85 =648 \$176*2박/ \$137*3박	\$354 (81*2일+8 1*2/3식)+(59*2일+59 *1/3)	\$90 \$30*6일/2
정진국	4,000,000	2,171,940	520,100	153,000	1,498,840	889,700	485,570	123,570
					\$1,092	\$763*0.85 =648 \$176*2박/ \$137*3박	\$354 (81*2일+8 1*2/3식)+(59*2일+59 *1/3)	\$90 \$30*6일/2
노이안	4,000,000	2,171,940	520,100	153,000	1,498,840	889,700	485,570	123,570
					\$1,092	\$763*0.85 =648 \$176*2박/ \$137*3박	\$354 (81*2일+8 1*2/3식)+(59*2일+59 *1/3)	\$90 \$30*6일/2
이가영	4,000,000	2,171,940	520,100	153,000	1,498,840	889,700	485,570	123,570
					\$1,092	\$763*0.85 =648 \$176*2박/ \$137*3박	\$354 (81*2일+8 1*2/3식)+(59*2일+59 *1/3)	\$90 \$30*6일/2

○ 사무관리비 : 5,093,680원

- 차량 임차료 : 4,470,000원(오사카_4일)
- 연수 참고자료 책자 인쇄비 등 : 383,680원
- 전문가 간담회 수당 : 240,000원

○ 의정운영공통경비 : 3,000,000원

- 차량 임차료 : 3,000,000원(도쿄_3일)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215,752원

- 상임위 비교시찰 관련 기념품, 간담회 개최 등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일본(동경, 오사카) 방문기관 : 동경도의회, 후나바시 나즈미 특별지원학교, 교토모노모리 인정 어린이집 방문, 모리구치시립 사츠키 학원, 교토 인터네셔널 핑가 뮤지엄 시찰기관 : 동경 국립국회 국제어린이도서관, 다카쓰시카 시립 쥬에소학교 통학로
활동 목적	선진 교육제도 시찰을 통한 서울교육 제도개선 방안 발굴
활동 기간	2024. 5. 13.(월) ~ 5. 18.(토) 5박 6일

활동자	성명	심미경 (서울)
	소속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검 토 의 견		
<input type="checkbox"/> 후나바시 나즈미 특별지원학교 <input type="radio"/> 주요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나바시 나즈미 특별지원학교는 특수학생 중에서도 신체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특별지원교육을 하는 학교로, 현재 학급수는 중학부 23개, 고등부 25개이다. - 전체 학생수는 중학생 54명, 고등학생 48명으로 총 102명이고, 직원은 교사, 간호사 등을 포함해 총 130명이다. <input type="radio"/>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나바시 나즈미 특별지원학교는 교육과정을 세 개의 과정(A코스, B코스, C코스)으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세 개의 학년으로 나누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교육과정을 이처럼 세부적으로 구분한다면, 개별 학생의 능력과 특성에 맞춰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 지역의료센터와 연계 협력해 교육 뿐만 아니라 신체 발달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인상적이었다. 지역의료센터에서는 응급 지원, 학생주치의, 의료케어를 지도하는 의사 등을 지원하는 것도 신체적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 중증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과 조호하는 인력의 다양성(간호사, 교사, 보조 등)을 위해 노력하며, 각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들의 유기적 근무 구조가 인상적이었다. 		

□ 코도모노모리 인정 어린이집

○ 주요특징

- 인정어린이집 고도모노모리는 2007년 인정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유아교육·보육 기관으로, 본원의 가장 큰 특징은 혼합 연령 보육과 코너 시스템이다. 본원에서 0-2세의 아동은 연령이 구분된 보육실에서 생활하지만, 3-5세 아동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그룹으로 나눠 생활하고 있다. 코너 시스템이란 유아가 주체적으로 놀이 활동을 경험함과 동시에 다른 연령의 유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통한 공간구분을 최소화하고, 넓은 공간 안에서 다양한 놀이 코너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 시사점

- 0-2세 아동에게는 보육을, 3-5세 어린이에게는 교육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유보통합 전과 차이가 없겠으나, 하나의 기관에서 두 가지를 병행하기 때문에 연령대에 맞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서비스의 양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
- 학부모 입장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보육시간이 길어져 어린이를 어느 보육기관에 맡기더라도 육아와 경제활동을 양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 특히 어린이집 건축양식이 자연과 친화적인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아이들이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공간은 형광등과 같은 전열기구로 빛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채광을 통해 이루어지고 통풍이 잘되어서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될수 있는 부분도 인상적이었다.

□ 모리구치시립 사츠키 학원

○ 주요특징

- 모리구치시 사츠키학원은 오사카부 모리구치시 가스가초에 위치한 모리구치시 최초의 의무교육학교이다. 2014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던 가스가 초등학교와 다키이 초등학교가 통합되어 사츠키 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 이후 2016년에 사츠키 초등학교와 제3중학교가 통합되어 통합 시설을 갖춘 사츠키학원이 의무교육학교로 개교하였다.
- 사츠키학원은 배움의 연결, 사람을 연결, 지역과의 연결이라는 3개의 '연결'을 기조로 하여 9년간의 학습을 연결는 일관성 있는 교육, 야간학급 및 지역과의 교류 촉진을 위한 공간의 정비·설치, 다세대 교류의 거점이 되는 지원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등이 주요 특징이다.

○ 시사점

-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과의 연계성이었다. 시즈키학원은 지역주민을 하교지도, 화단 가꾸기 등 교내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하고, 학교운영협의회에 참여시킴으로써 지역과의 연결을 유지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하는데 성공했다.
- 또한 학교 운동장을 조목 조목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아이들이 여러 활동이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옥상의 수영장도 더욱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학교 자체가 아닌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부분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일본
활동 목적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발전 방안 모색
활동 기간	2024.5.13.(월) - 5.18(토), 6박 6일

활동자	성 명	이종태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검 토 의 견

* 일본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협력 현황을 중심으로

- 일본은 학교 교육과 지역 사회의 연결 및 협력에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특히 80년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의 필요성은 우리에게 비해 조금 더 빠르게 대두되었다.
- 예를 들어 2008년 도쿄도 미타카시는 시내 모든 학교를 커뮤니티 스쿨로 지정하여 '배움', '마음 기르기', '체력', '안전안심' 으로 주제를 정하여 학교와 가정, 지역의 협동에 의한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커뮤니티 스쿨의 성과로는 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의 이해 촉진과 정보공유 활성화, 교직원이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 확보, 교직원 의식 개혁 등이 있다.
- 아울러, 학생의 학력 향상, 학생지도 문제 해결, 학습 의욕 고취 및 지역 교육력 향상, 지역 민원 감소, 교원 인사의 적절성 등도 성과로 인식되고 있다.
- 또 다른 일례로 지역학교협동본부를 설치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학교와 지역의 연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통학로 안전과 수업 보조 등의 학교 지원과 방과후 또는 주말의 돌봄 교육 등에서도 코디네이터가 종합적인 활동 추진을 관여하고 있다.
- 이번 방문 기관 중 모리구치시립 사츠키학원에서는 지역 주민이 자원봉사 형태로 등하교 지원,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문부과학성의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해 지역과 학교의 협력 우수사례로 모범이 되고 있다.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일본
활동 목적	
활동 기간	2024.5.13.(월) ~ 5.16(목), 3박 4일

활동자	성 명	이희원 (서명)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검 토 의 견

I. 공무국의활동을 시작하며

한국은 경제·산업구조 및 사회구성 등 여러 분야에서 일본과 시대적 흐름을 같이 하고 있기에 향후 사회 변화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동된 과제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연령층의 사회 진출과 더불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의 구조적 문제는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전인교육을 기반으로 한 교육방식을 표준으로 일컫게 했으며, 나아가 보육과 교육의 경계를 허물어 국가의 역할이 확장되는 결과를 남게 했다.

한국은 장기적 계획에 따라 현시점에 들어 디지털교육혁신을 필두로 유보통합, IB교육, 기초학력보장 등의 활발한 정책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한국보다 이른 시점에 이와 같은 교육정책을 먼저 준비하고 시행했으며 해당 정책 및 사업의 공과가 확실한 결과 및 평가의 시기에 서 있다.

따라서 공통점도 많고 차이점도 많은 선행 일본의 교육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시행 예정인 한국의 다양한 교육정책의 미래를 가늠해보고 비교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공무국의활동은 그 의의가 있다.

II. 국외 활동에 관한 소고

1. 동경(東京)도의회 교육위원회 방문

① 기초학력보장

일본은 코로나19가 성행했던 2020년을 교육개혁의 기점으로 삼으면서 다양한 교육개편 과제를 발표했다. 기존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주체성 강화 및 내용의 실용성 확대 등 새로운 과목 편성과 더불어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노력이 담겨 있었다. 한국에서 논의되는 기초학력저하의 문제를 일본도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던 것이다.

학생들이 임시 휴교, 온라인 수업, 자발적 체험 등 교육방식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계기를 토대로 다양성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데 기여했던 학습방식은 학교수업으로 돌아오면서 수학과 영어 등 전통적인 과목의

학습에 대한 더 큰 부담이 되었다. 한국과 일본 모두 같은 고민과 문제인식을 가지고 대처하려고 했던 것 같다. 특히 수학 교육시수 확보, 수학 교원 확충 등 적극적인 대처로 학력강화에 힘쓴아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이려 했으나 그 성과가 미미하다고 한다. 한국도 기초학력 향상의 과제로 수학교육을 꼽고 있는데 일본의 노력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향후 시행될 한국의 기초학력 향상 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느꼈다.

② 디지털 교육

일본은 현재 1인 1pc를 지급하고 있으며 디지털 교육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단순 지급 형태에 불과하지만 교체 등 기기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기관이 주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 활용과 관련해서는 한국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매우 적극적인 모양새이다.

한국의 디벳 정책은 기기를 잘 다루고 디지털 학습에 익숙한 한국 학생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초기 지급단계에 불과한 일본과 비교해서 한국은 시각적으로 직관적인 콘텐츠를 삽입하거나 간접체험이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수업자료들이 전자칠판과 디지털교과서 등 디벳 기기의 활용과 더불어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한국의 경우에는 디지털 기기 활용이 늘어나면 날수독, 인터넷 중독, 의존심화,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여 오히려 현상에 무감각해지는 심리적 문제까지 활용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과제가 산재해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③ 유보통합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국외활동에 중점을 두었던 일본의 유보통합제도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시행 예정인 한국의 유보통합의 과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보육소(=한국의 어린이집)와 유치원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일본사회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90년대부터 논의가 되었지만 2006년에 와서야 법안이 통과되는 등 일본도 나뉠대로의 매서운 진통을 겪었다. 20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연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지만 보육소와 유치원을 일체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일본은 보육소와 유치원에 관한 각각의 제도를 학부모들의 요구에 맞춰 개선해가자는 정책방향으로 선회하는 논의가 제기되었다는 점을 통해서 한국의 유보통합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재원확보에 진통을 겪고 있으며, 아직 통합모델이나 교원 확보 및 양성에 관한 체계 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 단계부터 우려가 되는 유보통합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항상 염두해야 한다. 사회구조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저출산화가 가속되는 현시점에서 국가가 보육까지 책임을 지되, 어떠한 영역까지 포괄해야 하는지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해야 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의 완성도가 정책 성과를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2. 후나바시 나츠미 특수학교 방문

이곳은 장애인 직업교육 전문학교로, 한국의 특수학교와 비교하여 매우 인상이 깊었던 방문지였다. 특히 이 학교에서 눈여겨 지는 부분은 0세부터 사망 시까지 장애학생의 평생 의료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재정부담과 지원인력, 그리고 장기적인 플랜이 입체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매우 어려운 과제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여러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교육위원으로서 매우 크게 다가왔었다.

251명의 학생과 130명의 교직원이 함께 생활하며 아직도 스마트폰이 아닌 무전기를 사용하여 소통하는 점은 또다른 인상이었다. 재해재난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지역 특성 상 아날로그 방식이 더 유용하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견 수긍이 갔다.

마지막으로는 ‘공공근로’의 형태가 간호사에게도 적용되는 점이 흥미로웠다. 오후 3시 반 이전에 퇴근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까지 충족되는 이 부분은 의료기관에만 몰려있는 간호사들의 활동 영역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수학생에 대한 인식차이,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식 등은 한국도 이미 잘 정립되어 있다. 다만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의료기관과, 비영리단체(NPO), 교육기관, 학생 및 학부모 등 여러 구성원들이 목적의식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충분한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금 가지게 한다.

3. 코도모노모리(인정 어린이집)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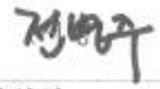
이곳은 일본의 모범적인 유보통합 사례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이 적지 않았다. 첫째로 한국의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그 주된 사무주체이나 실행은 교육청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하 각 지역교육청이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일거에 관리할 수 없기에 별도의 통합부서 혹은 부속기관을 두어 전담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전국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각 지역마다의 특색에 맞춘 교육청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서의 개편 혹은 신규 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둘째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임신한 시기부터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고민하고 인근 기관에 쉽게 등록하여 보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은 아이를 낳아도 인근 보육기관이 부족하여 대기기간이 길거나 원거리 통원, 혹은 부모 1인이 직장포기 등 불리한 선택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비교대상이 되었다. 이외에도 교원의 자격에 관한 부분이나 지역간 교육격차에 대한 고민으로 유보통합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얻었던 시행착오들을 들으면서 25년도부터 추진 예정인 한국의 유보통합정책에 대한 철저한 준비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고민도 함께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일본
활동 목적	일본 교육제도 탐방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적용
활동 기간	2024.5.13.(월) ~ 5.18(토), 5박 6일

활동자	성 명	전 병 주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검 토 의 견		
<p>○ 국외시찰에서 주요 착안 사항은 일본의 유보통합 실현 방법으로, 유보통합의 한국 도입 방향을 검토하고자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경우에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차별없이 제공하려는 유보통합의 추진 목적에는 큰 이견이 없어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는 꾸준히 있었지만, 소요비용의 재원 조달 방법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차이로 추진이 어려웠던 실정임. - 하지만 2023년 1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유보통합 추진방안’ 을 발표하며 2025년 유보통합 모델 완성을 목표로 하고,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앞으로 영유아 교육 사무가 모두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일원화되어 추진될 것이 예정된 상황에서 일본의 유보통합 실현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 방문기관 중 하나였던 ‘고도모노모리 어린이집’ 은 인정어린이집으로, 유치원과 보육소의 기능을 통합한 인정어린이집은 일본에서 2006년도 처음 도입했지만 정책의 실패 이후 2015년부터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집으로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음. 고도모노모리 어린이집 또한 2015년 4월 인정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며 기존의 유치원과 보육소를 통합하여 운영됨. - 고도모노모리 어린이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함께 교육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저출생으로 인해 적정규모의 또래 집단 확보가 어려워져 한국 교육에도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이와 유사하게 서울시교육청 또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4곳의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물리적 통합도 어려운 상황으로 유보통합 시에도 양질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 유사한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고도모노모리의 교육과정을 교육청에 소개하고 발전시킬 예정임. - 한편 일본정부는 한국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유보통합 논의를 공론화했던 것 		

으로 생각됨. 하지만 충분한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치원, 보육소, 인정어린이집 세가지 형태로 영유아 보육이 진행되고 인정어린이집으로의 전환 속도도 둔화하는 추세로, 아직 추진 초기인 한국의 유보통합의 방향과 속도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유보통합 형태의 기관이 일본과 같이 여러 영유아 교육수단 중 하나로 자리잡을지, 원래의 유보통합 추진 목적과 같이 유일한 교육수단으로 자리잡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느낌.

- 또한 도쿄도의 교육비전, 국제어린이도서관, 모리구치시립 사츠키학원, 교토국제만화박물관 등의 사례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어린이청소년시설의 적극적인 개방과 지역사회 협력의 선순환 필요성**을 느낌.
 - 최근 서울에서도 학교 시설 개방 등의 주민 요구가 높아져 일부 자치구와 교육청이 협약의 형태로 학교의 주차장과 체육시설 등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임.
 - 또한 지역사회의 교육활동의 기여 측면을 언급하면 서울시교육청 또한 약 10여년간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서울미래교육지구 등의 명칭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예산 확보 문제, 자치구 별 인식 수준의 차이 등으로 활성화의 정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됨.
 - 어린이청소년시설이 가지는 특수성만을 강조하며 시설개방에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모리구치시립 사츠키학원처럼 특수성을 보완하여 지역사회에 교육기관이 하나의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적극적인 시설개방이 학교와 지역과의 연계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고민하는 계기가 됨.
-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한국과 유사한 사회문제를 경험했거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교육정책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 교육위원회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높았던 공무국외출장으로 생각됨.
 - 일본의 교육과정 통합, 폐교, 시설개방,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등의 사례를 통해 장단점을 비교하며 서울의 교육정책을 보완할 필요성을 느낌.
 - 특히 유보통합과 같이 정책 초기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본의 사례를 발전시켜 시의회 차원의 공론화를 통해 명확한 방향 설정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음.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일본
활동 목적	
활동 기간	2024.5.13.(월) - 5.18(토), 5박 6일

활동자	성 명	고광민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검 토 의 건		
<input type="checkbox"/> 후나바시 나즈미 특별지원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나바시 나즈미 특별지원학교는 특수학생 중에서도 신체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특별지원교육을 하는 학교임. 현재 학급수는 중학부 23개, 고등부 25개로 이루어져 있음. ○ 후나바시 나즈미 특별지원학교는 각 학생의 발달, 건강 및 교육적 필요에 따라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 방문교육의 세 가지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있음.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과정은 학생의 교육적 필요로 고려하여 세 개의 과정(A코스, B코스, C코스)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도 세 개의 학년으로 구분하여 학생의 필요에 따라 과정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방문교육의 경우 통학이 어려운 학생의 가정에 교사가 방문하여 일주일에 3일, 하루 2시간씩 수업을 진행함. 		
<input type="checkbox"/> 정책적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의 경우 그동안 장애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소위 '통합교육'에 주로 방점을 둔 측면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후나바시 나즈미 특별지원 학교 방문은 중도·중복 장애학생과 같이 장애정도가 심각해 교육활동에서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음. ○ 현재 우리나라도 2022년 6월 특수교육대상자 유형에 중도중복장애가 추가되고, 2024년 2월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중도·중복 장애 학생이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발 맞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중도중복 장애 학생들에게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교토국제만화박물관

○ 교토국제만화박물관은 「모두의 폐교 프로젝트」 중 하나의 사업으로, 1995년에 폐교된 ‘다즈이케 초등학교’를 문화시설로 활용한 사례임.

- 현재 교토국제만화박물관은 일본 내에서 만화연구, 만화연구자 훈련, 만화관련 산업 장조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일본의 폐교자산 활용 용도를 살펴보면, 우선 학교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사회체육시설이나 사회교육시설로 활용되고 사례가 많음.

- 교토국제만화박물관은 폐교자산을 문화시설로 활용한 사례로서 폐교시설이 학교 및 체육시설 이외에도 지역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되는 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토국제만화박물관과 같은 일본의 폐교자산 활용 사례는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큼.

□ 정책적 시사점

○ 현재 서울의 폐교 관리 및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청 차원에서 폐교를 다른 시설로 활용하기로 결정한 후 시설 설립을 위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정작 폐교가 발생 된 이후 폐교자산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 및 정보제공 등의 체계가 상당히 부실한 실정임.

○ 반면 교토국제만화박물관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폐교 시설 용도를 확정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3자 협의회(교토시, 지역주민협의회, 폐교활용자)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폐교 활용 용도를 결정했다는 차이가 있음.

○ 이처럼 우리나라도 폐교자산의 활용방안을 고려하게 될 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관련 협의회를 구성하여 해당 협의회의 결론대로 폐교자산의 용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함.

- 폐교자산은 엄연히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임. 지금처럼 폐교시설이 교육청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교육청의 부족한 업무공간을 충당하는 형태로 이용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일본 도쿄·오사카
활동 목적	국외공무출장
활동 기간	2024년 5월 13일(월) - 18일(토), 5박 6일

활동자	성 명	채 수 지	(서명) 
	소 속	교육위원회	
검 토 의 견			
<p>- 출장목적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서울에서도 폐교가 진행되고 있는 바, 일본의 폐교활용 사례 등을 탐색하고 교육감이 특수학급 의무 설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학교를 방문하여 바람직한 특수교육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p> <p>- 지바 현에 1977년 설립된 후나바시 나즈미 특별지원학교는 특수학생 중에서도 신체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특별지원을 하는 학교인데 학교 내에서 의료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인상깊었고, 거의 병원과 같은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학생을 등교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음.</p> <p>- 일본 문부과학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총 8,580개 학교가 폐교되었음, 평균적으로는 매년 450개교가 달하는 수치임. 폐교 증가로 인해 일본은 폐교 시설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토지 용도 변경을 용이하게 해준다던지, 리모델링이나 증축에 필요한 서류들이 여러 행정기관에 걸쳐있어 복잡했던 프로세스를 소속 창구 일원화에서 공급자와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폐교 활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음. 교토국제만화박물관은 그 사업 중 하나로 폐교된 다츠이케 초등학교를 문화시설로 활용한 사례였음. 다양한 외국인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있는 문화시설로 탈바꿈한 모습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판단되었음.</p>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일본
활동 목적	국외공무연수
활동 기간	2024.5.13.(월)~ 5.18(토), 5박 6일

활동자	성 명	최유희 (서명)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검 토 의 견

지난해 12월,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의 근거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 유보통합 전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통합교육의 일환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인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로 이원화돼 있는 주무부처를 한 부처로 통합하는 것이 유보통합의 주된 목표로 보면 된다. 유보통합은 1997년 김영삼 정부때부터 추진됐지만 교사 양성체계 일원화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매 정부마다 유보통합을 하겠다고 했지만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윤석열 정부에 와서야 비로소 교육부로 주무부처가 일원화됐다. 현재 추진단을 꾸리고,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차근차근 통합 과정을 거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유아보육·교육 시설의 교육과정과 운영 형태는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나라보다 먼저 유보통합을 추진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정책 추진에 반영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이번 공무 연수 중 오사카에 있는 고도모노모리 인정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일본은 1990년 후반부터 유치원을 관리하는 문부성과 보육소를 관리하는 후생성이 시설 공용화에 대한 지침 등을 마련하면서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교육과 보육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종합시설에 대한 논의가 생기면서 2006년 기존 유치원과 보육소 이외 제3의 시설로 취학 전 교육과 보육을 일원화시킨 인정어린이집 제도 운영이 시행됐다. 방문한 고도모노모리 인정어린이집도 1974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각각 운영하다가 2015년 일본의 인정어린이집 제도가 본격 추진되면서 두 시설을 통합해 인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 기관은 부모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미취학 유아에게 교육과 보육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육아 고민 상담을 비롯해 가정 내 육아를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었다. 이 기관에서는 유치원 원아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급식 포함)지 교육과 돌봄이 이뤄지고, 부모가 추가로 돌봄 등을 원하면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8시 45분까지, 오후에는 2시부터 7시까지 추가로 신청 가능했다. 반면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의 경우, 기본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돌봄이 이루어지고, 토요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정오까지 돌봄이 이루어졌다. 연장을 원하는 부모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평일에는 오후 7시, 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 보육 연장이 가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추가 돌봄 신청을 위해선 부부가 맞벌이임을 증명해야 하고, 토요일에 운영하는 곳은 흔치 않다는 점은 운영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 기관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가 혼합된 그룹으로 구성돼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 유치원과 보육원의 구분이 없고, 서로 돌보고 돕는 방법을 배우게 했다. 가족처럼 같은 환경에서 형제, 자매처럼 자라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연령별로 반을 구성해 발달에 따른 교육커리큘럼 제공이 주된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었다. 또, 모든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코너마다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관심사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점도 인상 깊었다.

인정어린이집은 전체 유치원, 보육소를 통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를 통합해 운영한 사례였는데 궁극적으로 모든 유치원과 보육소를 인정어린이집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정어린이집 운영은 의무 설치가 아닌 현장 자율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존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쉽게 전환하지 않다 보니 이원화가 아니라 삼원화 체계가 유지되고 있고, 관리·감독 기관도 문부성, 후생성에 이어 내각부가 추가된 상황이다. 인정어린이집으로 유보통합을 시도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적으로는 여전히 기관 중복 등 비효율적인 면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유보통합의 어려움 중 하나인 교사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인정어린이집 유형 중 '유보연계형'에 해당되므로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유치원교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인정어린이집 중 일부는 '유치원형', '보육소형', '지방재량형'의 다른 유형들도 존재해서 같은 유보연계형은 인가유치원 및 인가보육소가 연계해 운영하는 형태인데 '유치원형'은 '인가유치원'이 보육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육소를 허가받지 않은 시설이고, '보육소형'은 인가보육소이긴 하나 유치원은 허가받지 않고 유치원 기능을 하고 있다. '지방재량형'은 유치원, 보육소 어느 쪽도 인가 없이 교육·보육시설을 병합한 형태다. 이러한 기관들의 경우에는 교사 자격이 모두 다른 상황이다. 일본이 기존 유치원과 보육소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별도로 유치원 교육과 보육 일체화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기관(인정어린이집)에 취학 전 교육과 보육을 일원화시킨 것으로, 유보통합 이후 실제 유보통합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과정 및 운영 시스템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앞서 유보통합을 시작한 일본도 유치원과 보육소를 그대로 두고 제3의 통합기관을 만들었다는 점, 기관 일원화가 아닌 삼원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해 관리·감독기관 및 기준도 일원화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어렵게 시작한 정책인 만큼 일본에서 나타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하며, 여러 이해집단들 간의 갈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 정책을 실현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일본
활동 목적	일본 사례 통한 유보통합 발전방안 모색
활동 기간	2024.5.13.(월) - 5.18(토), 6박 6일

활동자	성 명	이새날 (가/8)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검 토 의 견

- * 일본 유보통합 운영 현황 및 인정어린이집 운영 연구를 중심으로
- 일본은 현재 유보통합이 일부 이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비슷한 예로 인정어린이원을 유보통합의 부분적인 형태로 인식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두 기관을 통합하기 위한 제원 방안 마련 등 유보통합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 이미 일본은 2006년 유치원과 보육소 두 기관을 통합하며 인정어린이을 개소했으나 전환율이 저조하여 2015년에 아동육아 3법을 제정하여 인정어린이원의 지위와 기능을 명시하고 본격적인 통합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 이번에 방문한 ‘고도모노모리 인정어린이원’ 또한 2015년에 통합 기관으로 거듭나며 일본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한 지역사회의 보육과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부모의 취업 여부를 떠나 형평성 있는 교육 및 보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돌봄 지원을 하고 있다.
 - 해당 기관 교육과정의 장점은 단순히 유치원과 보육의 통합이 아니라 ‘가정’ 이라는 따뜻함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함께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본 학습 측면에서 우수성을 드러내고 있다.
 - 우리 또한 유보통합을 시행할 때 단순히 기관을 합병하는 수준이 아닌,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교육의 질 향상, 교사 자격 및 교육, 접근성과 포용성, 정서적 지원 확장, 지역사회 연계, 재정 확보 등 다각도의 논의를 통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일본
활동 목적	
활동 기간	2024.5.13.(월) ~ 5.18(토), 5박 6일

활동자	성 명	김혜영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검 토 의 견		
<p><input type="checkbox"/> 모리구치시립 사츠키학원</p> <p>○ 모리구치시 사츠키학원은 오사카부 모리구치시 가스가초에 위치한 고리구치시 최초의 의무교육학교(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외 초·중등 과정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학교)임. 일본 의무교육학교는 총 9년 과정으로 동일한 학교장과 교원 조직으로 운영됨. 의무교육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원 면허가 모두 필요함.</p> <p>- 사츠키학원은 교내 시설이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교육문화생활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개교 당시부터 지역 주민·보호자·학교 관계자가 다 같이 참여했다는 특징이 있음.</p> <p>- 사츠키학원 내 학교운영협의회는 학교가 지역과 어떤 연계활동을 할 것인지 논의하고 연구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음. 동 협의회는 지난 2022년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일본 문부과학성으로부터 장관상을 받기도 했음.</p> <p>○ 사츠키학원의 학교운영협의회가 활성화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사츠키 프렌즈” 제도가 활성화 되었기 때문임.</p> <p>○ 이러한 사츠키 프렌즈 활동은 활동 이후 항상 피드백을 받는 등 지역주민의 학교 활동 참여에 대한 사후관리도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하나의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음.</p> <p>-동상적인 학교복합화 시설과 사츠키학원의 차이점은 사츠키학원은 학교 시설을 단순히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교 교육 활동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야간학급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문화, 복지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사회에서 학교가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점임.</p>		

□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학교시설을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안전 위협에 대한 학부모들의 문제제기로 인해 복합화 사업 추진 및 복합화시설 운영 시 예외사항을 겪는 사례들이 많음.
 -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시설개방 비율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방하는 시설의 범위도 운동장 및 체육관에 한정되어 있는 편임.
- 반면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앞서 저출생 문제로 겪으면서 국가 차원에서의 학교시설의 개방을 넘어 학교시설이 지역 사회의 공공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해 놓았음.
 - 사츠키학원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단순히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사츠키 프렌즈” 등의 활동 등을 통해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또한 이를 통해 학교가 지역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면서 인구 감소로 소멸되는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교훈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 이로 인한 학교 통폐합 및 폐교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함.

□ 오사카 통학로 시찰

- 일본의 경우 2012년 학생들이 통학로에서 중대한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관계부처(국토교통성, 문부과학성, 경시청) 합동으로 통학로 안전을 위한 체계를 정비함.
-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은 국토교통성, 문부과학성, 경시청 등이 합동으로 ‘학교의 위험지점을 추출’하고 대책이 필요한 지점을 찾아 통학로를 변경하고, 교통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도로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음. 또한 사후 관리를 위해 시정촌 교육위원회와 학교에서는 지역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통학로 안전 대책안은 마련하였음.
-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초등학교의 등·하교를 지원하여 지역 아동을 보호하도록 하고, 학교, 경찰, 시민단체 등이 연계하여 교통안전 및 방법 관점에서의 안전맵을 개발하기도 하였음.

□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차도 혼용 등의 요인으로 인해 통학로 내에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지난 2023년 2월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계획”이 발표되기도 하였음.
 - 그러나 아직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에도 인접도로에 보도가 없는 학교가 상당수 존재하는 등 통학로에 보행공간 확보 및 보도 설치 등 통학로

안전 방안을 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점검은 행안부, 교육부, 교육청 등에서 각각 추진 되는 상황인데, 일본의 경우 학교의 위험지역을 조사하고 추출하는 단계에서 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하고, 각각의 조사 자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후 대책 방안 마련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우리나라 통학로 안전 방안 역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교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일본
활동 목적	
활동 기간	2024.5.13.(일) ~ 5.18(토), 5박 6일

활동자	성 명	우 형 찬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검 토 의 견		
<p>○ 이번 탐방에서 중점적으로 방문 전 연구 분석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보기로 하였고, 출국 전부터 두 곳의 사례에 대해 심층분석 후 방문하였음</p> <p>○ 한 곳은 저출산시대에 따른 도심내 학교 동폐합과 이에 따른 폐교활용 시설 방문' 사례인 교토국제만화박물관, 또 하나는 유보통합 사례시설인 '고도모노도리 인정어린이집' 방문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향후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적용할 부분을 검토하고자 했음</p> <p>✓ 교토국제만화 박물관을 찾았을 당시, 출판만화라는 일본의 문화브랜드를 1869년 창립한 초등학교를 리노에이션하여, 방문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지역문화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어 좋았으나, 출판만화의 한계성을 보여 아쉬웠음</p> <p>✓ 1869년 창립한 초등학교를 리노에이션한 거앞으로 도심내 교육시설에 대한 활용방법을 어떻게 결정할지 과정에 교토시와 세이카대학, 지역연합회 등 치열한 논의를 거쳐 진행이 된 것으로 볼 때 앞으로 한국에서도 유사한 연구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공청회와 조례를 통해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을 체감하였음</p> <p>✓ 지역주민들의 욕구와 주변 인프라와 의회 등 다양한 논의주체가 필요할 뿐 아니라 시설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 준비가 우리나라에서도 시작할 때라고 판단함</p> <p>✓ 한국의 경우 폐교시설을 만화박물관으로 리모델링 한다면 VR, AI를 통한 웹툰 만화박물관을 구축하면 또 다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음</p>		

✓ 본격적인 저출산시대를 맞은 우리나라에 가장 시급한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고도모노모리 인정어린이집' 방문을 통해 얻은 점은 정책과 실행은 의지의 문제이며, 그 의지를 뒷받침할 행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음

✓ 무엇보다 새로운 제도가 출범하면 건물 신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보다는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유보통합의 공간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 유아와 어린이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지켜본 바 아이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다는 선생님의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며, 상호 배려하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음

✓ 아이는 사회가 키워나간다는 '와카모리 마사시' 로 이사장의 이야기처럼 인정 어린이집에서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학부모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성공적인 보육을 의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 금번 국외공무활동을 통해 선진국 일본도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실패와 성공, 그리고 아쉬움이 남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으며, 우리나라도 같은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만 사전적 대비를 통해 성공을 크게 실패와 아쉬움은 최소화 해야 과제를 얻음

○ 성공적인 제도 정착은 충분한 소통과 공감, 시민들 간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금번 국외공무활동을 통해 공감하였음. 끝.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일본
활동 목적	선진 교육제도 탐방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적용
활동 기간	2024.5.13. ~ 5.18.

활동자	성 명	이 승 미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검 토 의 견		
<p>금번 공무국외연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활용 방안, 보육과 교육을 일원화하기 위한 유보통합의 방향, 지역사회와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학교복합화 사례, 그리고 중증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지원체계 등에 관해 앞서 해당 정책들을 추진해 온 일본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개선 방안 및 추진 방향 등에 관한 시사점을 찾고자 마련되었다.</p> <p>각각의 방문 기관은 정책적으로 우리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면서도 제도나 인력, 시설 등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p> <p>1. 후나바시 나츠미 특별지원학교</p> <p>이곳은 우리나라의 특수학교에 해당하는 곳으로 중증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뿐만이 아닌 의료적 지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간단한 처치는 교사를 통한 지원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의료지원은 학교 내 간호사 배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원이 가능한 이유는 학교에서 의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료 과정 중 사고 발생시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가 구축된 것이 주요 원인 이었다. 이는 630만명 정도의 지바현 인구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학생이 250명 정도임을 고려하였을 때 서울 역시 이와 비슷한 규모의 중증장애학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을 위한 교육차원에서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학교 내 간호사 배치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의료적 지원이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마련 등 특수학교의 역할 변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p> <p>2. 고도모노모리 인정어린이집</p> <p>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유보통합을 시도하여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인정어린이집이라는 유보통합 기관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본은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것이 아니라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을 유지하면서 제3의 기관으로 유보통합 기관인 인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유보통합이 국가 정책적 관점</p>		

에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체 기관을 한 번에 통합하는 것이 어려운 사안임을 일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유보통합 정책에 있어서도 급진적인 정책 추진보다 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충분한 사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모리구치시립 사츠키학원

해당 기관은 우리의 이음학교와 같은 초·중 통합학교에 해당하는 곳이며 지역주민과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야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최초 해당 방문지는 지역사회와 함께 시설을 공유하는 복합화사례를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방문했으나, 우리의 복합화 시설과 같이 체육관, 급식실, 도서관 등을 지역주민과 야간학생을 대상으로 공유하고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다는 점 이외 특이점은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대신 초·중 통합학교로서 학년 간의 활발한 교육활동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학년이 저학년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유대감을 높이고 교육효과를 높이려는 노력은 눈여겨 볼만하였다. 더욱이 학생들과 야간학급 학생들 간의 교육 과정의 연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교사를 통한 일방적 교육보다는 이음학교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 연계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이 있었다. 한편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사츠키 프렌즈는 학생들에게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지역주민에게는 교육활동에 참여를 장려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츠키 프렌즈 활동은 우리나라의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방안에 대해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4. 교토국제만화박물관(폐교활용)

해당 기관은 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현재 국제만화박물관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폐교가 국제만화박물관으로 개관하기까지 교토시, 폐교활용기관(세이카대학), 주민들이 오랜 기간 폐교 활용시설 용도에 대해 논의한 과정이 인상적이었다. 현재 서울시에도 폐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이 폐교를 다양한 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폐교 시설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책 과정 등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반해 일본은 폐교를 활용할 때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지역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며 그 결과 해당 기관도 폐교를 박물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행사 및 문화활동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공시설로서의 학교시설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제어린이도서관, 오사카 동학로 및 도쿄도의회 등을 방문하여 의미 있는 연수기회를 가졌다. 이번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일본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학생수 감소로 인해 근본적인 교육정책 변화가 요구되는 서울시가 향후 단순한 학교 체육시설개방을 넘어 학교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공생하며 교육 정책 및 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